

네이버, 초대형 AI ‘하이퍼클로바’ 베일 벗었다

머스크 ‘오픈AI’보다 능력 우위
크리에이터·스타트업 등 지원
“글로벌 AI 기술 리더 발돋움”
서울대·카이스트 공동 연구도

네이버가 초대규모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고, 글로벌 AI 기술 리더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사용자와 중소상공인(SME),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며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목표다.

네이버는 25일 온라인으로 ‘NAVER AINOW’ 콘퍼런스를 열고 AI 기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다.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의 GPT-3(175B)를 뛰어넘는 204B(2040억 개) 파라미터 규모로 개발됐다. AI 모델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의 수가 높아질수록, AI는 더욱 많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는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은 대형 AI 모델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고 따라잡는 수준에 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초대규모 AI를 위해 지난해 10월 700 페타플롭(PF)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위해 5600억 개 토큰(token)의 한국어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네이버 초대규모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카이스트 AI 대학원과는 ‘카이스트-네이버 초창의적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해 AI 공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퍼클로바는 AI 개발과 적용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상 속에서 AI가 널리 사용되도록 한다. 하나의 ‘빅 모델(Big Model)’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다양한 문

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I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의 확장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의 기술을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6일 검색 서비스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단어로 전환해 검색해 주거나 적절한 검색어를 추천해 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이후에는 하이퍼클로바가 SME,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제시하는 소수학습 방식으로 AI를 동작시킬 수 있으므로, AI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손쉽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마저 가능해지는 새로운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SME와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AI 기술이 필요한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전세계 TV 두 대 중 한 대 삼성·LG

삼성 1분기 점유율 32.9% 1위… LG 19.2% ‘역대 최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1분기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TV 시장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인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와 신제품 네오(Neo) QLED TV 판매 호조로 1위를 지켰고, LG전자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5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79만 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 성장하며 역대 1분기 출하량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TV 시장의 최대 성수기이자, 분기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에 맞먹는 수치다.

LG 올레드 TV의 고속 성장은 이 제품의 평균판매단가(ASP)가 2000달러에 가까운 프리미엄 제품임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커진다. LG 올레드 TV의 ASP는 1996.3달러(약 224만8000원)로 글로벌 시장에 판매된 LCD TV의 ASP인 498.7달러의 4배 이상이다. 프리미엄 TV인 LG 올레드 TV가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LG전자의 점유율 또한 19.2%를 기록, 분기 점유율 가운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대수 기준

으로도 LG전자는 올레드와 LCD(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해 총 727만9000여 대의 TV를 글로벌 시장에 출하했다.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을 15% 이상 늘렸다.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TV 판매 1위 자리를 지킨 삼성전자도 1분기 금액 기준 32.9%의 점유율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역시 역대 1분기 가운데 최고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의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2.1%로,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과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총 1161만5000대를 판매해 수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QLED는 전체 268만 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154만 대 대비 74.3% 성장했다. 이 중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약 201만 대다. LG 전자를 포함한 전체 올레드 TV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어난 119만 2000대를 기록했다.

옴디아는 지난해 365만 대 수준이던 올레드 TV 시장이 올해 58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레드 TV의 비중은 금액 기준 10%를 차지,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칠성음료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세상 맛있는 ZERO! 칠성사이다 ZERO!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Chilsung Cider ZERO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도쿄올림픽 홍보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美, 자국민에 “日 여행 가지 마라”

“日 코로나 상황 매우 심각”
美 올림픽 불참 우려 고조
스가, 긴급사태 연장 고심

미국 정부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이 대회 개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까지의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기존 3단계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끌어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여행경보 등급을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여행 보건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아주 높음’으로 발령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을 보여준다”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CDC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들도 변이에 감염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며 “일본으로의 모든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중지 권고를 내리고 있다. 이날은 일본과 스리랑카가 여행금지 국가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강화된 주의’ 2단계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이 대회 개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올림픽을 열 수 있다고 국내외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일본에 또 다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스포츠 역시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나왔으며, 그렇게 될 경우 동조하는 타국 선수단이 뒤를 따르는 사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국내의 중단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도쿄도 등에 발령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다시 큰 정부로” 적극적 시장 개입 글로벌 공급망 주도

초대형 부양책 3건 잇따라... 40년 ‘작은 정부’와 결별
中전제 위해 韓·日·대만 등 동맹국과 공급망 재편 나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목소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경제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의 근간에는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경제와 정치 질서를 떠받쳐 온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 재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어젠다가 자리잡고 있다.

이 어젠다에는 정부가 미국 재건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사이에만 무려 3개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놓았고, 그 규모는 무려 6조 달러(약 6732조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이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입을 예고하며 지난 40년간 자취를 감췄던 ‘큰 정부’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이제까지 미국을 지탱한 것은 ‘작은 정부’였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정부”라며 규제 완화와 감세를 골자로 한 ‘작은 정부’를 선언했다.

공공 부문이 본질적으로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의 핵심 논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적게 일을 해서 나타날 위험이 너무 많은 일을 할 때보다 크다”며 “정부는 미국인의 삶에 좋은 것을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바이드노믹스’를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석했다.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까지 겹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바이든의 이러한 믿음에 힘을 싣고 있다. 유명 경제 전문가이자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는 “작은 정부”는 오히려 부진한 임금 상승과 생산성 둔화로 이어졌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면서 “뉴딜 정책처럼 바이드노믹스도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긍정했다.

바이드노믹스는 여러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정책’과 닮아 있다. 뉴딜 정책은 적극적 정부 개입을 통한 성장 정책으로 2~3차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으로 사회·

정치적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드노믹스의 또 다른 한 축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큰 정부로의 전환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국이 미국의 안보, 번영과 가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자칫 중국에 패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

자 계획’이 나온 배경이었다.

문제는 세계화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얽히고설켜 있어 미국 홀로 이를 재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새로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그간 중국이 지배적 역할을 하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반적인 위험 평가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포장재에서부터 배터리, 주요 원자재 등이 포함된다. 산업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인 셈이다.

그의 정책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WSJ는 정부의 막대한 지출과 차입이 인플레이션 촉발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으로 꺼내는 ‘부자증세’도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바이드노믹스’ 어떻게 다를까 /

현재 글로벌 시장경제의 사상적 뿌리인 신자유주의는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행보였지만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정부와는 차별된다. 바이드노믹스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자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잊어라”

재정지출 늘리고 세금 올리고 ‘새 경제질서’ 만들기

◇성장=레이저노믹스는 공급 중심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 조세 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되고 결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조한다. 바이든이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세금=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20%에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높은 세금은 노동과 투자를 방해하고 최저임금 숙련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레이저노믹스에 정면 배치된다. 바이드노믹스는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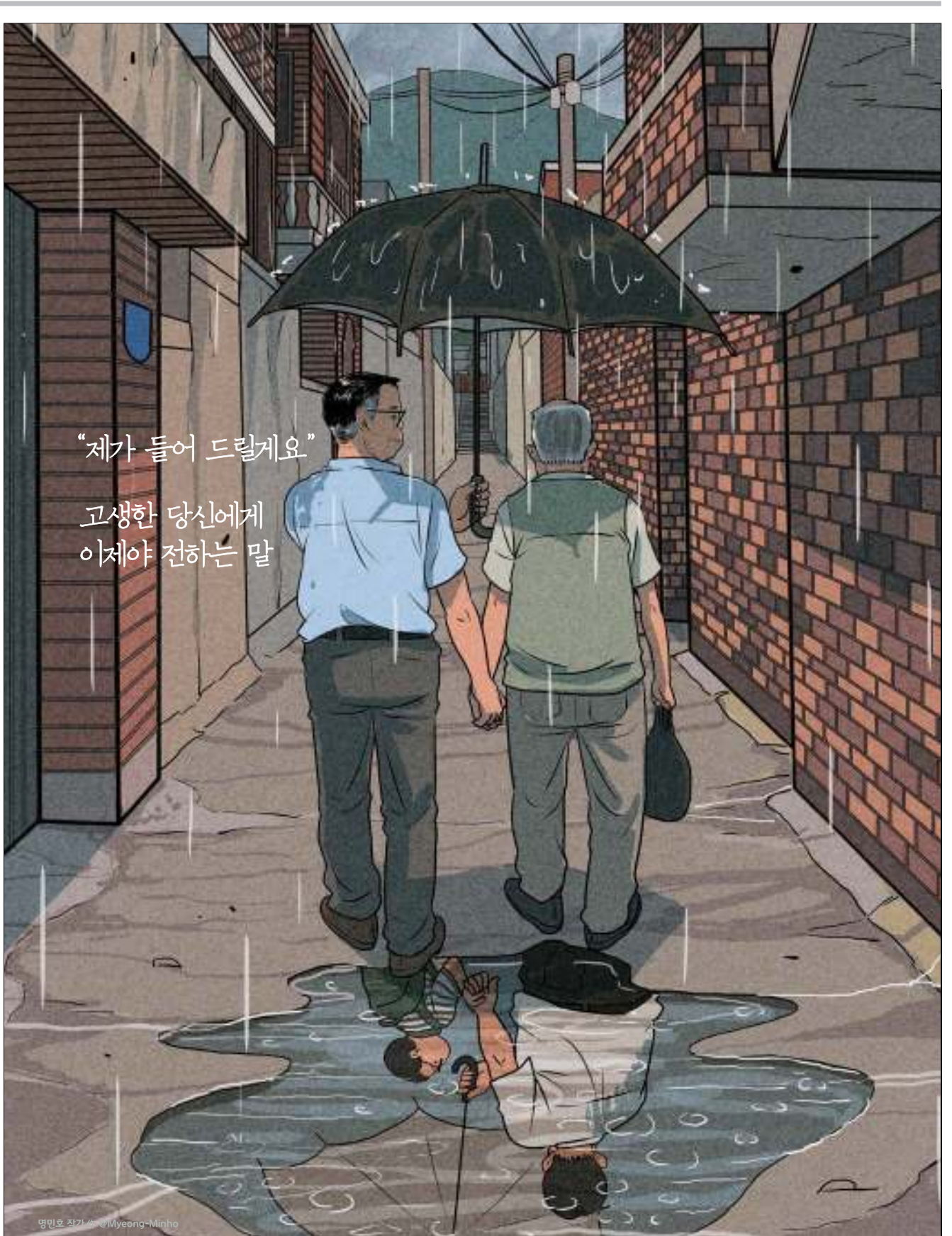
◇실업률=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실업률을 그 이하로 낮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인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본다. 낮은 실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불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실업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낮다는 이유에

서다.

◇지출=신자유주의는 정부 재정적자가 금리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글로벌 저금리는 저축이 풍부하고 수요가 만성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적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신자유주의에서 원조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일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이드노믹스는 원조를 보편적으로 접근한다. 간병처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노동이 대부분 시장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과 유급 노동이 과대평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정신을 토대로 한 신자유주의가 40년 넘게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동안 부작용이 파생된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이드노믹스는 유의미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사고의 전환을 부추긴다. 다만 실업수당 지급이 급증하자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중국 포위식’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지정학적 갈등을 초래하는 등 바이드노믹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밀함이 보태져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킵니다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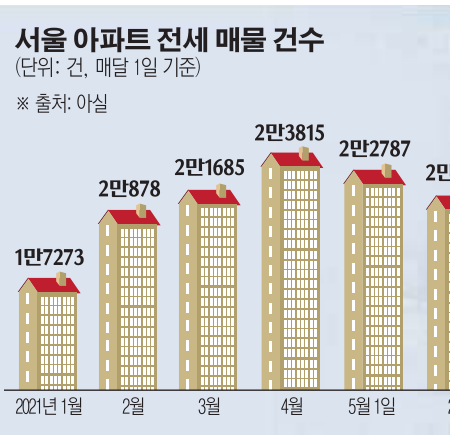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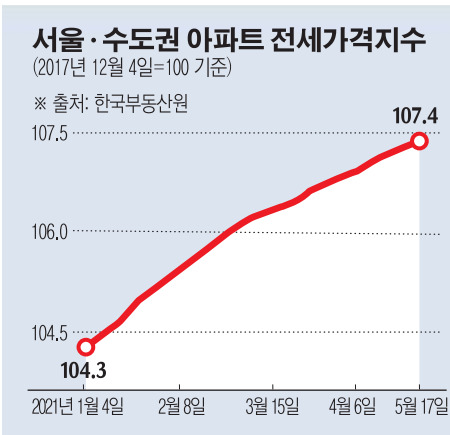
규제의 역설...수요 느는데 전세 나을 구멍이 없다

올봄 서울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지역은 서울 강동구였다. 상일동 ‘고덕 자이’ (1824가구)와 ‘고덕강 일 14단지’ (943가구) 등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서의 입주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전셋집도 대규모로 일시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강동구는 물론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이웃 지역의 전셋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 지역의 전세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가격 안정에 기여했던 대규모 전세 물량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두 달 전(3월 25일) 1647건이던 강동구 전세 물건은 25일 1151건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물건이 줄면서 전셋값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월 말 4억 원대에 구할 수 있었던 고덕 자이 전용면적 84㎡형 전세 물건은 현재 호가가 9억 원을 넘는다.

◇서울 강동서도 전셋값 들썩 = 아파트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인다. 신축 대단지 덕에 늘어나는 듯했던 전세 물량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단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요인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4주 내리 0.12% 상승하고 있다. 0.20%가 넘었던 연초보다는 낮지만 0.11%대 상승률을 유지하던 3~4월보다는 오름폭이 커졌다. 민간기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전셋



아파트 수급 불균형

강동구 대단지 소진돼 가격급등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 많은데

신규 입주 2만 가구 가까이 줄 듯

실거주 정책 리스크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강제

재건축 추진 단지 세입자 내보내

실거주해야 입주권, 법개정 추진

값은 점차 오름폭(0.03%→0.05%→0.06%→0.06%)을 키우고 있다. 보합 내지 안정 흐름을 보이던 3~4월 조사와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통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갱신 계약은 (증액 상한선인) 5% 내에서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신규 전세 계약은 그런 장치가 없다”며 “통계적으로만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서울에서만 약 7600가구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위한 원주민 이주는 주변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된다. 원주민 대부분이 집을 새로 사기보다는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머물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해서다. 반면 부동산114는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

트가 2만9656가구로 지난해(4만9078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 부르는 게 값 = 정책 변수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진다. 상일동 G공인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고덕 그라시움 등 2년 전 입주한 대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순환될 텐데 지금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며 “올라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들이 눌러앉고 있다. 가을이 되면 새로 전세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세 공급 여력은 점점 줄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단지에선 최장 5년간 집주인 실거주를 강제하도록 법규를 바꿨다. 현재 서울에선 425개 동 중 322개 동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인데 이들 지역

새 아파트에선 몇 년간 전세가 금지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2년 이상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바람에 아직 조합 설립을 못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이 금방 된다고 하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 경우가 많다”며 “6억~7억 원 하던 전용 93㎡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10억 원까지 올랐다. 내린 게 8억 원”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금 당장 전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주택 가격 더 오른다” 심리지수 올 첫 상승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 심리가 더 짙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5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CSI)는 124다. 4월 조사(122)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CSI가 전달보다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주택 가격 전망 CSI는 광역시 지역(127)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 도시와 서울은 각각 126, 119였다.

집값 전망 CSI는 1년 후 주택 가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를 수치화한 값이다. CSI가 100을 웃돌면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100 밑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 상승 전망이 시장에 지배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이 조사한 집값 전망 CSI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132)를 찍은 후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하락 추세가 멈춘 것은 정부가 공급 정책 등을 통해 추진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주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집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그 폭이 줄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를 기록,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다 정부·여당에서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세를 논의하고 있어서다. 박종화 기자 pbell@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에 ‘바늘구멍 뚫기’

LH, 민간주택 매입해 첫 공급 117가구 분양에 3141명 복적 올해 물량 2000가구 그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LH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첫 공공전세주택이었다. 두 개 단지에서 117가구를 분양했는데 3141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6.8대 1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전세난을 경감하겠다는 해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이 예상 밖 인기를 얻고 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라도 얻어 두자는 불안 심리 ‘덕’이다. 인기에 비해 느린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정책 성공 변

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전세주택 11만 가구 이상을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엔 공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월세 위주로 공공주택을 운영했지만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급한 대로 비어 있는 기존 월세 공공주택 약 3만9000가구를 전세로 돌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아직 첫 삽도 안 뜬 주택을 ‘입도선매’하겠다고도 했다.

시장 반응은 처음엔 시큰둥했다. 국토부가 공공전세주택으로 사들이는 민간주택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안양에서 공급한 공공전세주택도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

시장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상 밖 흥행에 국토부와 LH는 고무된 분위기다. 김현준 LH 사장은 최근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찾아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전세난으로 인해 값싸고 품질 좋은 전세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김 사장 말대로 빌라·오피스텔 전세도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전세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자들이 경제적 요인, 자산 증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감안해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 설계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정책당국에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전세주택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매입 약정을 마친 공공전세주택은 1358가구다. 국토부가 매입약정 체결 목표로 잡은 2만1000가구의 6% 수준이다. 국토부는 매입 약정을 서둘러도 올해 2000가구 정도가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양 1호 공공전세주택 청약자 수보다도 적은 규모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3만 건 이상 매입 약정 요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심의와 설계, 가격 협상,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강남 직결 시 3조 추가” GTX-D 경제성에 밀렸다

경기도안 6조·인천안 10조 소요 2호선 중복에 전철 재정난 우려 정부, 부천서 GTX-B 연계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이 수도권 서부권의 심각한 교통난에도 강남 직결 대신 김포·부천 연결로 확정된 것은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제성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 수립 과정에서 각 지자체 등이 제안한 200여 개 사업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시한 GTX-D 노선안은 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비용편익분석(B/C) 점수가 경제

성을 따지는 적도인 ‘1’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부천·김포·하남 등 3개 시와 함께 지체 마련한 노선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은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 구간이다. 사업비는 약 5조937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출발한 뒤 부천에서 합류해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 노선 형태다. 해당 노선의 총길이 110.27km로 총사업비는 10조781억 원으로 추정됐다.

최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연장할

경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 외에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 안과 인천시 안은 200여 개 사업안 중에서 평가 결과가 중하위권에 그쳤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하면 낙후도에 따라 균형 발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데 이런 평가 체계도 경기도 안이나 인천시 안이 중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분석된다.

정책성 평가에서는 교통 수요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나 인천시 안대로 GTX-D 노선이 놓이게 되면 2호선 수요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오게 된

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긴 상태다.

대신 국토부는 운영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GTX-B 노선과 연계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이다. 여의도역은 9호선을 바로 갈아타 강남까지 갈 수 있다. 서울역이나 마포역은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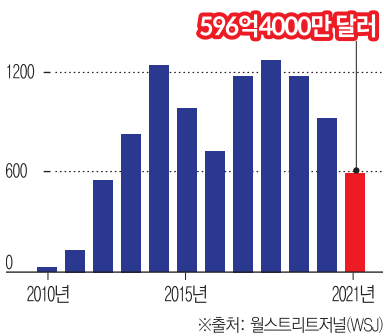
“서브프라임 닳은꼴” 美 ‘CLO 급증’ 골치

〈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액 67兆 16년 만에 최고
월가 “보유규모 축소” 경계

미국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신규 발행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21년은 5월 20일까지



경제 정상화 가도를 걷는 미국이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새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급증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CLO 신규 발행액이 596억 4000만 달러(약 67조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CLO는 주로 신용등급이 정크본드(Junk Bond·투기등급 채권) 수준으로 낮아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기업들이 활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전체 레버리지 론의 70%가 CLO의 몫일 정도로 기업들의 활용 비중도 높아졌다.

불어난 CLO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부채담보부증권(CDO)처럼 CLO 역시 부채 폭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경기 회복과 맞물려 대출 기업들의 전망도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CLO로 인해 허용 범위 이상으로 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CLO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체

CLO 발행액이 약 3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씨티은행은 2900억 달러를 전망했다. 두 수치 모두 2018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약 1289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CLO 시장 규모는 7000억 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조였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CDO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두 파생상품 모두 신용등급이 낮은 여러 증권을 묶어 더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CLO의 급격한 팽창에 월가도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CLO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축소하고 관련 부채 보유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콜버그 크래비스트버그스(KKR) 역시 보고서에서 “일부 CLO가 계속 거래되지 않은 점은 시장 이면에 취약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라며 “많은 거래에도 우리는 CLO 시장의 유통성이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G7 “돈 번 나라에 납세” 국제법인세 합의 임박

美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율 21%→15% 하향 조정 수용, 내달 공식서명 예정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합의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안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는 방침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G7의 최저 법인세율 인상 합의가 임박했다.

G7 재무장관들은 28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의를 통해 조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다.

재무장관들의 비공식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11~13일 영국에서 G7 정상들이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2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조

달 일환으로 미국 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 서 세계 각국에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추자며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각국은 법인세 인상에 대체로 합의하면 서도 21%라는 세율을 놓고 이견을 표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지했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반발했다. 영국도 당장 21% 인상은 어렵다며 물러났다.

돌파구는 미국이 지난주 애초 제시했던 최저 세율 21%를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련됐다.

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하는 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G7의 조세 합의에 추진력을 제공했다.

FT는 “미국이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에 근거해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켰다”며 “이는 최저 세율 하향과 함께 이번 협상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OECD 조세 조정그룹에 제안했다”며 “15%는 최저 기준이며, 앞으로 계속 이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G7의 합의안은 OECD에서 협상 중인 139개국에 제시될 예정이다. OECD가 조세 개편안에 합의할 경우 세계 법인세 100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동시켜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온 미국 IT 공룡들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0jung2@



말레이, 지하철 정면충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한 경전철 충돌 사고로 24일(현지시간)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있다. 이날 오후 9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인근 선로에서 승객이 타고 있는 열차와 빈 열차가 마주 오던 중 충돌해 47명이 중상, 166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열차 간 통신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클라나자야 경전철 운행 23년 만의 첫 사고다. 무히디 아신 말레이 총리는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쿠알라룸푸르/신화연합뉴스

‘10兆 빅딜’ 아마존, MGM 품는다

스트리밍 시장 경쟁 후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에 나선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디스커버리를 인수·합병(M&A)하며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양분한 스트리밍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데 이어 미디어 업계에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한 것이다. 아마존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디어 산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MGM을 인수하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인수 규모는 90억 달러(약 10조138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마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M&A다. 아마존은 2017년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했다.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계 지각변동이 활발한 가운데 자금이 풍족한 IT 기업들이 사냥에 나섰다

는 평가다. 1920년대 설립된 MGM은 ‘007 시리즈’, ‘록키’, ‘매드 맥스’, ‘핑크 팬더’, ‘금발이 너무해’, ‘사랑은 비를 타고’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주요 제작사다. 2010년 파산 보호 신청에 이어 회생 작업을 거친 뒤 매

각을 추진해왔다. 5월 말 현재 20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안고 있다.

아마존의 MGM 인수로 스트리밍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마존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계속해 왔다. 2010년 아마존 스튜디오를 세웠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프라임 비디오’ 사업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현재 첫 시즌 예산만 무려 4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반지의 제왕’ TV 시리즈를 제작 중이다.

아마존은 MGM 인수를 통해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GM은 TV 스튜디오와 프리미엄 TV 채널인 에픽스를 소유하고 있어 풍부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보유한 콘텐츠 가치만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아마존에 앞서 애플과 넷플릭스도 MGM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평가한 MGM 가치는 60억 달러 정도였다.

한편 아마존의 MGM 인수로 반독점 우려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등은 아마존의 시장 독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합병안은 기술기업의 시장 독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냉온탕’ 비트코인, 하룻새 1만 달러 폭등

이더리움·도지코인 등 두 자릿수 반등 “연말까지 오른다” 긍정론도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내리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이리하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반등했다. 지난 주말 3만1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3만 달러 선을 위협받던 비트코인은 다시 20% 가까이 반등하면서 3만900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하루 새 1만 달러 수준의 반등 폭을 그려내면서 4만 달러 진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한때 25%,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16% 각각 뛰기도 했다.

이날 가상화폐 시장의 급등세에는 북미 지역의 비트코인 채굴협회 결성과 이에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 코인데스크



대한 머스크 CEO의 호평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윗에서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현재, 그리고 계획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알리겠다고 했으며, 전 세계 채굴업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계획

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 대부분은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이날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데스크가 개최한 ‘컨센서스 2021’ 행사에 참석해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에 있어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월가의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 펀드스트래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공동창업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향후 추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종가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24시간 전보다 5% 이상의 등락 폭이 있었던 날은 무려 39일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치(42일)와 비교하면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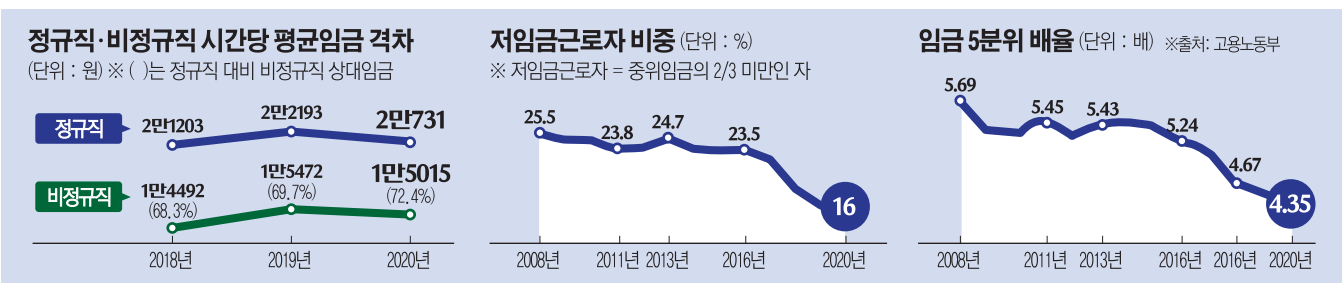
변호선 기자 hsbun@

정규직 70% 첫 돌파한 비정규직 임금은 ‘속빈 강정’

정규직 근로일수 증가·시간단축 탓
평균 임금 3.6% 더 줄어 격차 해소
低賃 근로자 비중 16%로 역대 최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2%(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 개선이 아닌 해당 기간의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6.6% 줄어든 2만731원으로 조사됐다.



비 6.6% 줄어든 2만731원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 감소한 1만5015원이다. 이로써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72.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은 작년 6월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3일 늘어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대폭 줄

어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시간당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일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은 늘어 결국 시간당 임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정규직의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의 비중이 높아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로 근로시간이 늘

어난다 하더라도 임금의 변화가 없어서 시간당 임금 감소가 비정규직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로 정규직 중심으로 정액 급여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바꿔 말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크게 개선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불과 2.9%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1.0% P 줄어든 16.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월 287만5000원)의 3분의 2 미만(191만7000원)인 근로자를 뜻한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0배)보다 떨어져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됐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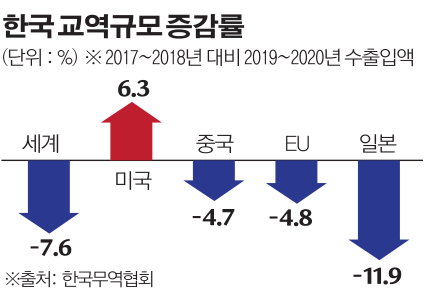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문 연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웨스트타워에 공식 오픈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 개관식에서 임영록(왼쪽부터) 신세계프리미티 대표이사,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남기덕 한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대표, 브라이언 백 조선 팰리스 총지배인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조선호텔앤리조트

韓日 갈등에 교역량 11.9% 감소

미국과의 교역은 6.3% 늘어
“정부, 관계 정상화 노력해야”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적 관계 악화에 2019년 전후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11.9%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히 위축됐다고 25일 밝혔다.

2019~2020년 중 한국의 대(對) 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보다 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의 교역액은 11.9% 줄었다. EU(유럽연합) - 4.8%, 중국 - 4.7% 등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의 교역은 오히려 6.3% 늘었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약 24조 원)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

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25.6% 줄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2017~2018년 12조6000억 엔(약 131조 원)에서 2019~2020년 18조6000억 엔으로 47.8%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5786억 엔에서 2194억 엔으로 62.1% 급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도 2019~2020년 중 대(對) 한국 수출액이 14.7%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한국 78%·일본 65%〉 韓日 국민, 협력 원하지만 여전히 ‘먼나라’

한경연 ‘한·일 국민 인식·전망’ 설문
상대국 비호감이 호감의 2배 이상
‘바이든 중개로 개선’ 기대감 안높아

국민 10명 중 8명이 협력적 한일관계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 국민 1431명(한국 714명, 일본 717명)을 대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일 국민 중 상당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직접 노력할 것을 희망했다. 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관련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민 78.0%와 일본 국민 64.7%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향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국민은 협력해야 할 분야로 역사문제 공동연구(23.5%)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일본 국민은 문화·관광 교류사업(23.2%)을 우선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고 양국 교류가 정상화되면 한국 국민 58.4%와 일본 국민 28.3%는 여행지로 상대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을 1순위 여행지보다는 2~4순위 여행지로 선택했다.

또 한국 국민 49.7%, 일본 국민 63.7%는 ‘향후 미국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 국민이 44.3%, 일본 국민이 25.6%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일 양국 모두 낮은 편이었다. 한일 국민은 상대국에 대해 ‘중립적’(한국 응답 35.2%·일본 응답 37.0%)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비호감’ 응답이 ‘호감’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호감 또는 매우 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이 16.7%에 그쳤지만 ‘비호감 또는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48.1%에 달했다. 일본 국민도 한국에 대해 ‘호감 또는 매우 호감’ 응답이 20.2%인 것에 비해 ‘비호감 또는 매우 비호감’ 응답은 42.8%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김대영 기자 kdy@

국민연금,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늘린다

8대 사회보험 작년 수익률 8.6%
기재부 차관 “국내 채권 위주서 탈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8대 사회보험의 적극적인 투자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현재 계획상 65%인 국내의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차관은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를 주재하며 “8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각적 조치들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준 8대 사회보험의 채권 비중은 46.1%로 미국(27.9%), 캐나다(22.8%), 노르웨이(24.7%)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 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투자 여건하에서도 수익률이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8.6%를 달성했다.

기관별로는 사학연금(11.5%), 산재보험(11.2%), 공무원연금(10.5%) 등이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국민연금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7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수익을 창출, 글로벌 수익률 순위도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안 차관은 향후 자산운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먼저 자산배분 계획 수립 시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등 선진적 자산운용 전략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산운용인력 전문화, 소형기금의 자산운용 아웃소싱 등 자산운용 시스템도 지속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별로 각자 보유·운용 중인 자금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상황 및 개별 자산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 다변화 전략을 수립·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을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 확대의 사전 준비로 보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최대 70~80%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퍼블릭 골프장’ 탈세 꿈수

▶1면서 계속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 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신했던 원을 계상·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 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업체는 식자재 영업사인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한 혐의다.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조사 대상엔 안과, 피부과, 치과 등 병원도 여럿 포함됐다.

D안과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000만 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렸다.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치과는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뺀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포착됐다. E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중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는 B치과 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인 67명에 대해 허위경비와 누락한 수입 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입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증 대상에 호황 분야 대기업,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준법감시필 2021-0271

인생금융
전문가 삼성생명FC

“
FC님께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시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쉽고 편하네요~



“
오늘도 고객님들을
디지털로 더 가깝게 만날수 있어
좋아요



디지털로 더 가까이, 지금 삼성생명 FC를 만나보세요!

삼성생명 디지털파트너를 만나보세요

삼성생명 디지털활동지수 [DQ]를 도입하여, 디지털 활용 역량이
탁월한 디지털 금융전문가인 "디지털파트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디지털파트너와 함께 경험해 보세요

삼성생명은 보험에 대한 안내, 상담 청약 지급 등에 있어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대면하여 상품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SAMSUNG

정치불신에 새인물 기대감·공감력이 부른 ‘이준석 돌풍’

꾸준한 활동으로 인지도 높아져 개혁·쇄신·혁신 아이콘으로 열광 실제 본경선까지 이어질지 미지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돌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이유에 대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인물 갈망, 10여 년간 꾸준한 개혁 보수 인지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시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5일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들이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한몫 했다”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중진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이준석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렸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김웅, 조경태, 윤영석, 홍문표, 나경원, 주호영,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역시 “국민의힘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적 인물’은 이제 빠지라는 목소리, 이들로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단순히 ‘새로운 얼굴’ 만으로는 절대 이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반드시 ‘인지도’가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활동으로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85년 생으로 운동권 출신이 아닌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로 개혁보수를 지향해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박근혜 키즈’로 새누리당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만 거침없는 입담과 활발한 방송 출연,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 등으로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장 소장은 “그동안 언론에도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며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 개그맨 강성범 등의 발언도 언론 집중도를 높인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돼 작게는 국민의힘, 크게는 정치권의 개혁, 쇄신,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젊고 새로운 후보 중 사실상 국민이 아는 사람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해 온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

며 “나머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지지할까”라고 냉철하게 말했다.

‘새 인물이지만 아는 얼굴’. 여기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이 후보에 대해 열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지난 10년간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출마 등 많은 경험으로 단련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내공과 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도 “인지도가 높고, 그렇다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 이준석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준석 열풍이 실제 본경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는 선거와 같이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의 결과 차이’ 현상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평론가는 “여론조사에서는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작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본인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에는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이번만큼은 당원들도 기존 중진으로 가는 것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질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野 ‘행복도시 특공 국조’ 요구에 與 “野 투기 조사부터”

감사원 “4개 부처 감사 대상” 의견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2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등 의원 111명이 서명했다.

야 3당은 요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최

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심지어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유령 신청사를 지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세종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로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로 수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에 대한 논란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 업무는 감사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감사원은 “권 의원실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 감사에 착수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감사 청구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였다.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거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내일을 위한 생각! 멈추지 않는 열정!

Moving forward!

성실과 열정이 빚어낸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전력기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발전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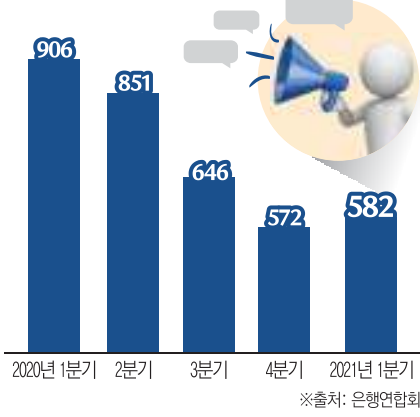
고객 원하면 무한 반복 ‘투자성향 평가’ 실효성 논란

금소법 두 달간 잇단 허점
고객 마음 들 때까지 계속 평가
횟수 제한 은행에 맞긴 금융위
상반기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두달여 지났지만, 현장에선 허점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무제한 개인 투자성향평가 논란이 일고 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업계 의견이 달라 막판 고민중이다. 일각에서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최

은행권 분기별 민원건수
(단위 : 건)



근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러한 안내를 인지한 고객들은 투자성향평가 결과가 본인 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평가시 기재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재평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상에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고객의 재평가 요구를 제한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제한을 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해 금소법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질의해놓은 상태.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재평가를 원하는 경우 1일간 수차례 평가를 진행해도 되는지, 투자성향평가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이며, 금융위에서 막판 조정 중”이라며 “보수적으로 횟수를 제한해달라는 금융사도 있고, 자율에 맡겨달라는 금융사도 있어 의견이 상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애매한 규정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애매한 규정이 많은데, 이를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1일 몇회’의 횟수 제한이 큰 의미가 없는 건 알지만, 향후 책임이 전가될까 우려해 금융당국에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선 응당 법 시행 전에 나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제서야 부랴부랴 마련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줄어들던 은행권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고객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접수된 민원은 582건으로 전 분기 대비 1.75%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4분기에는 통계 공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1분기 만에 반등한 것이다. 앞서 은행 민원은 지난해 1분기 906건에서 2분기 851건, 3분기 646건, 4분기 572건으로 줄어들었다.

서지연 기자 sjy@

산업은행, 오늘 6000억 증자 ‘소부장’ 지원 나선다

혁신모험·금융시장안정화 펀드 등 사용 예정

KDB산업은행이 6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에 나선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속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튿날인 26일 오전 11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6108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에 관한 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자된 금액은 혁신모험펀드(2400억 원), 금융시장안정화펀드(2300억 원), 산업구조고도화 및 환경안전투자(700억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작년에 기획재정부 등이 계획한 내용을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기재부에 출자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2400억 원의 비중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예산은 환경안전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산은은 혁신모험펀드에 24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혁신모험펀드는 지난 2019년 8월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산은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경제활력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300억 원가량을 금융시장 안정화에 투입한다.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은 크게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은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700억 원 이상의 금액은 산업구조고도화 및 환경안전투자에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산은이 그린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은은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도울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팍진산 기자 jinsan@

“디스커버리 펀드 최고 80% 배상하라”

금감원, 기업銀 분조위 결정

위험설명 못 들은 개인에 60%

투자성향 임의 작성 법인에 64%

신한·하나銀 등 분쟁 순차 조정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미상환 금액은 2562억 원(분쟁조정 신청 96건)이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을 우선 진행했다.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표 사례 2건에 대해서 각각 64%(A법인), 60%(B개인)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현황

구분	미상환 잔액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금융권 전체	2562억 원	96개
기업은행	761억 원	45개
글로벌채권펀드	605억 원	41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156억 원	4개

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개인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을 방문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 이번에 분조위에서 논의한 2건 모두 기업은행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 회의 결과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 2명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 이외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은행, 한국투자·IBK투자증권 등 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 잔액은 1801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와야 차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부산은행, 학교폭력 예방 후원

BNK부산은행은 2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손강(왼쪽) 부산은행 경영전략그룹장과 노희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사진제공 BNK부산은행

기업은행, 창업 플랫폼 ‘IBK창공’ 투자 홍보

IBK기업은행은 25일부터 이틀간 IBK파이낸스센터에서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 마포6기·구로5기·부산4기의 통합 데모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데모데이는 창업 육성프로그램 IBK창공의 마지막 과정으로 기업들이 제품,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스타트업 유관기관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행사다. IBK창공 육성기업 중 30개 기업이 피칭에 참여하고, 18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기업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IBK창공 마포·구로·부산 3개 센터가 협업해 진행하는 최초의 통합 데모데이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들과 VC(벤처캐피탈)를 초

청해 창공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된다. 이날 윤종원 은행장은 “기업은행은 모험자본 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1조 5천억원의 공급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5300억 원을 지원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창공은 혁신창업기업에게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는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등 금융서비스 2,580억원, 멘토링·컨설팅, IR 등 비금융 서비스 4155회를 지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영업의 정도 지켰죠” 지난해 274건 계약

동양생명 연도대상 김명빈

동양생명은 ‘2021 동양생명 연도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지점 김명빈 (39, 하이브리드사업부부산지점·사진) 명인이 다이렉트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명빈은 지난 한 해 총 274건의 신계약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동안 매일(영업일 기준) 고객에게 1건 이상의 보험을 판매해 온 셈이다.

그는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전 요식업, 주류 유통업,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경험했다. 그가 몸으로 부딪쳐 가며 배운 다양한 경험들은 밑거름이 되어 입사 첫해인 2013년 ‘신인 금상’을 수상한 이래 금상만 4차례 수상하는 등 매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설계사에게만 주어지는 ‘명인’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영광도 안았다.

2020년 김명빈 명인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97%에 달한다. 계약유지율은 완전판매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에 계약한 이후 1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고객이 10명 중 9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유지율의 배경에는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하는 김명빈의 성격이 잘 묻어나 있다. 그는 3대 기본 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 전달)를 생활화하는 등 영업의 정도(正道)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계약의 첫 단추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험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자 매일 아침 직접 작성하고 분석한 경제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는 등 고객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현대차, 美 친환경차 투트랙 공략 시동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성패 좌우
아이오닉5 등 내년부터 현지 생산

글로벌 엔진업체 커민스와 협력
국내 제조 수소트럭 동력장치 공급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친환경차 전략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필수인 순수 전기차는 현지에서 완성차로 생산하지만 수소전기트럭은 동력장치(파워트레인)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 트럭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주요 국가별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현지 생산이 필수”라며 “이와 달리 수소전기트럭은 현지 트럭 제조사에 연료전지 시스템만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맞춰 미국 현지에서 8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작년 12월 ‘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 내용 가운데 북미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규모 미국 투자의 핵심은 친환경차를 포함한 미래 전략이다.

먼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현대자동차가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을 25일 출시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 연료전지 트럭이다.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총 14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미국시장에는 완성 수소전기트럭이 아니라 파워트레인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를 직접 생산한다. 미국 행정부가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현지 판매용 전기차의 현지 생산은 필수다.

대형 트럭을 겨냥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는 현지 생산 대신, 현지 업체에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먼저 대형 트럭은 전기차보다 수소전기차가 훨씬 유리하다. 덩치 큰 트럭을 순수 전기차로 만들기에 부담이 크다.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만큼 차 무게가 늘

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수소전기 시스템은 대형 트럭에 유리하다. 기본적인 연료전지 시스템을 갖추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수소탱크만 추가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충전 시간도 짧아서 효율적이다.

주행구간이 일정하고 이른바 ‘트럭 스톱’으로 불리는 대형 트럭 전용휴게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수소 충전소 구축도 유리하다.

현대차는 이런 특징을 지닌 미국 수소전기트럭 시장에 파워트레인만 공급하는 것

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 내 물류의 약 75%는 대형 트럭이 담당한다. 약 400만 대의 트럭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대륙 횡단’에 나서고 있다. 주행거리가 긴 만큼 대형 트럭은 교체 수요도 많다. 한 해 120만 대 이상이다.

최근 미국에 진출한 볼보를 제외하면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라이너 △캔워스 등 대형 트럭 제조사는 자체 개발한 엔진이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엔진을 골라 장착해 준다.

이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 중인 회사가 커민스(Commins)다. 대형 상용차는 물론 선박과 발전기 엔진으로 이르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9월 ‘커민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소전기 트럭을 완성차로 판매하는 게 아닌, 점유율 40%를 거머쥔 커민스와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타 완성차, 선박, 철도, 지게차 등 운송분야, 전력 생산 및 저장 등 발전분야에 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는 신사업과도 일맥 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시장 진입 초기에 연료전지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콘셉트 카가 공개된 만큼, 완성차 진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노조 만난 최주선 대표
삼성디스플레이 파업 불씨 끄나

최주선(사진)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가 취임 반년 만에 노조와 처음 만났다. 이달 중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만남으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김정란·이장완 삼성디스플레이노조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 사장과 노조가 금일 면담을 진행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는 전일 최 사장 측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최 사장이 취임한 이후 노조와 대화 자리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임금협상 등 노사 대화 자리엔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이 최 사장을 대신해 회사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달 27일 회사와의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들였다. 쟁의 행위와 관련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91.4%의 찬성을 얻어 언제든지 파업이나 태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노조 측은 전향적인 회사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면담 자리가 노사 간 얼어붙은 분위기를 전환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갤Z폴드2’ 사용자 90% “폴더블폰 재구매 할 것”

드류 블랙카드 상무 기고문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의 사용자 만족도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2종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품팩터 변화의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5일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모바일 제품관리 리더 드류 블랙카드(Drew Blackard·사진) 상무는 최근 ‘삼성 폴더블은 어떻게 스마트폰의 사용 방식을 바꿨나’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올렸다.

블랙카드 상무는 삼성 내부의 갤럭시 Z폴드2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갤럭시Z폴드2의 사용자 만족도가 96%이며, 10명 중 9명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다시 구

“폴더블폰 만족도 100% 육박
올해 시장 규모 3배 성장 전망
획기적 기술, 이제부터 시작”

매하겠다고 응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달 한 시장조사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자의 절반이 다음 기기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글로벌 전망도 인상적이다. 올해만 폴더블 시장이 작년보다 3배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카드 상무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을 때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었다. 접



이식 폼팩터는 스마트폰 기능을 재정의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통신하게 했다”라며 “오늘날 폴더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블랙카드 상무는 “폴더블은 몇 년에 걸쳐 먼 길을 걸어왔지만, 이 획기적인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

이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폴드3 등 차기 폴더블폰 2종과 갤럭시S21 FE(팬에디션)을 8월 출시할 전망이다. 이들 제품은 오는 7월 말 혹은 8월 초 언팩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작보다 1~2개월 빨라진 일정이다.

갤럭시Z폴드3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를 배치한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와 S펜을 장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Z폴드3는 무게와 두께를 전작보다 많이 줄여 휴대성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출하량 목표를 지난해 출하량보다 약 2.5배 늘어난 600만~700만 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관람객에 인정 받은 LG디스플레이
美SID ‘피플스 초이스’ 2관왕

LG디스플레이는 17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열린 SID(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21’에서 차별화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앞세워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People’s Choice Awards)’ 2관왕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는 SID 전시 기간 중 관람객들이 직접 투표해 △최우수 디스플레이 신부품(Best New Display Component) △최우수 디스플레이 신기술(Best New Display Technology) △최우수 기술 시연(Best Technology Demonstration) △우수 전시장 구성(Most Interactive Booth) 등 4개 부문을 선정해 수여한다.

송영록 기자 syr@

그린 암모니아 시장 선점 ‘팀 코리아’ 결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협력에 나섰다.

HMM과 롯데정밀화학, 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 등 총 6개 기관은 2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해운시장 선도를 위한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병커링(선박 연료로 주입)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 그린 수소 캐리어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물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추진선과 병커링선을 개발, 이를 한국선급이 인증을 진행한다. HMM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선박을 운영하며 포스코가 해외에서 생산

HMM·포스코·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6개사 컨소시엄 업무협약

한 그린 암모니아를 롯데정밀화학이 운송·저장해 병커링 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로 감축돼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제로 로드맵’ 보고서에서 암모니아가 2050년 선박 연료 수요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선박 연료 시장 규모와 암모니아 가격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100조 원 규모다.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미 유럽 중심 컨소시엄과 싱가포르 중심의

‘다국적’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져 관련 표준과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 국가’ 내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이 그린 암모니아 생산·유통과 선박 개발 및 운영 등 전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컨소시엄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최대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갖추고, 국내 유통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단일 회사의 구매 규모로는 세계 3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 후 국내로 들여오는 수소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LG엔솔 ‘화재 위험’ ESS 배터리
4000억 들여 자발적 회수·교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자발적으로 회수해 교체에 나선다. 교체와 추가 조치에 드는 비용만 약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LG엔솔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ESS 배터리 전용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자발적 교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LG엔솔은 ESS 화재 원인을 정밀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엔솔에 따르면 중국에서 초기 생산된 ESS 전용 전극에서 일부 공정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해당 위험요인이 가혹한 외부환경과 결합하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LG엔솔은 해당 제품이 사용된 국내·외 사이트에 대해 고객과 협의를 거쳐 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ESS 배터리 교체가 이뤄지는 국내 전력망 ESS 사이트에 대해서는 배터리 충전율(SOC)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사이트의 배터리 진단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LG엔솔은 ESS용 배터리 교체와 추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약 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과 품질 문제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LG엔솔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LG엔솔은 지난해 12월 분할 이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자발적인 교체 등 선제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김종현 LG엔솔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오늘부터 지구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SK에코플랜트의 힘으로

쓰레기는 자원으로 돌아가고
태양과 바람은 동료로
건축은 친환경으로 바뀌죠

이것이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바뀐 이유
지구를 푸르게 되돌리기 위해

기대하세요
우리가 심는 새로운 내일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는
친환경 솔루션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자재부터 시공까지 신기술을 더한
친환경 건축·인프라

공유킥 업계 “신산업 특성 맞게 규제 손질해야”

퍼스널모빌리티산업協 간담회
“안전기준 강화 이용자 반토막
매출 최대 70%까지 줄어든 것
법 개정·전용 면허 도입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 남짓 지난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 이에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규제보다 산업 진흥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규제를 산업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PM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전동 킥보드 산업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했다. 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고,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말 완화됐던 규



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규제가 강화하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개정안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에 대해 SPMA 관계자는 “50%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SPMA에 소속된 한 업체는 개정안 시행 첫날 킥보드 한 대당 매출이 55% 급감했다. 감소세는 65%로 심화했다. 신규 가입자 수 또한 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체는 매출의 60~70%까지 줄어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률의 감소는 관리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공유 PM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규제가 늘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기기는 개인과 공유를 포함해 올해 기준 약 60만 대, 시장 규모는 총 3362억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공유 킥보드만 놓고 보면 SPMA 회원사가 운영 중인 기기는 9만 1028대로 수도권이 61.1%, 영남권이 19.8%, 호남권 9.9%, 충청권 9.2%의 분포를 보인다.

서울시가 내놓은 견인 조례에 대해서도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인해 PM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한 PM에 대해 4만 원의 견인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따라서 업계는 PM 산업에 맞는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MA는 개정안과 관련해 “PM 면허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동기 면허는 킥보드 운행과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헬멧 규제에 관해서도 자전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PMA는 “지난해 말 공용 헬멧을 비치해본 결과 3분의 2가량 분실됐고 나머지 절반은 심각하게 파손됐다”며 “업체마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체 캠페인을 통해 헬멧 착용의 필수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발적으로 PM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PM 관련 법안은 두 건이다. 주요 내용은 △PM 노선 지정 △PM 통행제한 구간 지정 △PM 거처 구역·거처제한구역 지정 △PM 무단방치 금지 △PM 대여사업 등록 △PM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정 등이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서비스 운영한 지 2년 만에 24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공유 킥보드를 탔다”며 “시민 생활에 많이 녹아든 만큼 규제의 관점보다는 진흥과 활성화의 관점으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KT시즌, KTV 콘텐츠 협력

KT-문체부 ‘저작권 소송’ 중
KTV “KT OTT에 홍보 유리”
7부작 ‘빅포레스트’ 7월 방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채널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국정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빅포레스트’를 제작해 KT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시즌(Seezn)’에서 선공개하기로 했다. KT 시즌은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KTV, 시즌 통해 OTT용 콘텐츠 첫선=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KTV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즌 편성용 프로그램 ‘빅포레스트’를 제작한다. ‘빅포레스트’의 기획 의도에는 국내 지역 곳곳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 등 국정 홍보도 포함됐다. 또, 이달 30~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도 다시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방영은 7월 초로 예정돼 있다.

KTV는 문체부 산하기관이자 공공채널이다. 케이블 및 위성방송, IPTV 등으로 정부의 정책 정보와 공공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다.

‘빅포레스트’는 KTV 최초로 국내 OTT에서 선공개 되는 콘텐츠다.

KTV 관계자는 “지난해 OTT 시장이 확 커졌고, 이에 OTT 플랫폼 안에서 갖추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즌에서 먼저 ‘빅포레스트’가 방영된 뒤 케이블에도 순차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시즌’에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국정 홍보 영상 콘텐츠 ‘빅포레스트’를 7월에 방영한다.

‘빅포레스트’는 총 7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에피소드는 30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이돌 그룹 ‘빅톤’이 출연해 흥행도 주목된다. 7편은 △수소 으뜸 도시 완주에서 시작하는 수소전기차의 모든 것 △대아 수목원에서 배우는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중요성 알기 △천혜의 자연 오성 한옥마을에서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카페 아르바이트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배우는 자원 순환과 공존 가치 △통영에서 만나는 그린 생활 실천 △통영 비밀의 화원에서 배우는 비치클링 활동과 업사이클링 △빅톤의 환경 여행, 그 뒷이야기 등으로 꾸려진다.

웨이브, 왓차, 티빙 등 다양한 토종 OTT 중에서 KTV가 시즌을 선택한 요인은 핵심 이용자층이다. KTV는 “10~20대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 시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소송은 소송대로, 협력은 협력”= KT는 현재 LG유플러스와 함께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들에게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3월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SK텔레콤의 웨이브도 티빙, 왓차와 함께 소송에 나서 통신 3사 모두 문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가세한 셈이다. 이후 황희 문체부 장관이 OTT 사업자들과 직접 만나 저작권료 갈등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문체부 산하기관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독점 편성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V 관계자는 소송과 콘텐츠 제작·유통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KTV가 문체부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책임운영 기관이며, KT는 KTV를 콘텐츠 제작사로 인지하고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문체부와 행정 소송에 나선 KT가 문체부 산하기관과 콘텐츠 유통 협력에 나선 데 관해 OTT 산업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적군과 아군이 계속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KT의 선택이 일면 이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소송이 ‘문체부와 전면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KT와 KTV 간 협력 구도를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OTT 업체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고, 소송과 별개로 협의가 되면 그것대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도 올해 2월 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이 제도 개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협의체 관계자는 “승소나 패소보다 문제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대가 받고 ‘배민 허위 리뷰’ 조작업자 실형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 허위로 리뷰를 올린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

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해 왔다.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짜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인 앱에 올라온 리뷰를 참고해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사장님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2G 완전 종료

정부, LG U+ 폐지 승인
유저 LTE 단말구매 지원

LG유플러스의 2세대(2G) 서비스가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 만에 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LGU+)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LGU+는 앞서 올해 초 폐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4월 7일 폐업승인을 재신청했고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LGU+는 14만 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LGU+ 내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30만 원 단말구매 지원 또는 무료단말 15종을 지원한다. 여기에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재도전 응원” 실패박람회 개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실패박람회’가 본격 추진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과 ‘다시 人’ 발대식’을 공동 개최했다.

‘실패박람회’는 2018년 행안부와 중기부가 국내 최초로 ‘실패’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이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패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며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는 재도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역박람회 개최했다. 지난해는 민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기획 프로그램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철철 행안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50인의 ‘다시 人’이 참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희망급식바우처 잡아라” 건강 도시락 싸는 편의점

서울의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최근 희망급식바우처로 도시락을 사기 위해 저녁 시간대 편의점을 방문했지만, 해당 품목은 모두 동난 상태였다. 그는 “편의점 직원이 편의점에서 바우처를 쓰려면 오전 시간에 와야 한다고 귀찮게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1인당 10만원 포인트 지급 나트륨·단백질 함량 기준 충족 맞춤형 제품 출시 잇따라

주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울시의 희망급식바우처 사업에 도시락 수요가 크게 늘면서다. 바우처 대상이 되는 도시락은 나트륨과 단백질 기준을 맞춰야 해 시중에서 파는 상품 중 기준을 충족한 일부 상품에만 해당되는 만큼 편의점들은 이색 프리미엄 도시락을 속속 출시해 수요 잡기에 나섰다.

◇희망바우처 이후 도시락 매출 급증=GS리테일은 20~24일 서울 지역 GS25 매장의 도시락과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먹거리 매출이 전주 대비 62.7% 신장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기간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서울 점포 도시락 매출도 전주 동기(13~17일)에 비해 33.8% 늘었고,

전월 동기 대비로는 23.4% 올랐다. 이같은 매출 증가는 정부의 희망급식바우처 효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 약 56만 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했다. 바우처는 편의점 6곳(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ストップ,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7월 16일까지 쓸 수 있다. 기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구매 품목은 제한된다. 도시락과 제철 과일, 흰 우유, 두유, 아재 샌드위치, 훈제 계란, 김밥류 등 10개 식품군만 구매 가능하다 보니 가격대가 높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비해 경쟁력이 높은 도시락으로 수



요가 물리고 있다.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40대 이 모 씨는 “다른 상품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도시락은 편의점의 차별화 품목”이라면서 “가격대도 있어 한도를 계산할 때도 편하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건강 도시락 11종이 도시락 베스트 상품에 진입하는 등 ‘희망급식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상품들이 각 카테고리 전체 매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 도시락’으로 학부모 겨냥=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제품이 모두 희망 바우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희망급식바우처로 구입 가능한 도시락을 1067mg 이하의 나트륨 함량과 990kcal 이

하, 단백질 11.7g 이상의 상품으로 제한했다. 대다수 편의점 도시락은 평균 나트륨 함량 1361mg로 성인 하루 권장량 2000mg의 68.1%에 달한다(한국소비자원 조사).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상대적으로 단가와 마진율이 높은 도시락 수요를 잡기 위해 기준에 맞는 도시락 품목을 늘리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CU는 최근 도시락에 포함된 열량 및 나트륨 함량 표기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확대해 보다 쉽게 영양소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양전면표시제에 나섰다. 아울러 열량과 나트륨을 줄인 ‘한끼식단 도시락 3종(제육, 돈가스, 간장 찜닭)’을 출시했다.〈사진〉

‘한끼식단 도시락’은 CU가 자체 보유한 간편식 영양성분 기준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제시된 열량 및 영양소 정보를 바탕으로 칼로리 600~800kcal, 나트륨 650mg 이하로 구성됐다. 이 업체는 앞으로 출시하는 도시락 신상품에 영양전면표시제를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운영 중인 모든 도시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S25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에

맞춰 나트륨을 저감하고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도시락 11종 운영하고 있다. 27일에는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이색 프리미엄 도시락 3종을 추가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도시락은 ‘갈비살구이도시락’(9900원)과 ‘민물장어도시락’(1만900원), 메로구이도시락(1만1900원)로 가격대도 일반 상품의 2배 가량으로 높다.

세븐일레븐은 희망급식바우처로 결제 가능한 도시락 7종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들은 기본 10% 할인에 제휴 통신사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바우처로 5000원 이상 결제하고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세븐앱) 적립 시 모바일 상품권 2000원을 증정한다.

이마트24는 희망급식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도시락 11종, 샌드위치 15종, 김밥 16종 등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바우처 사용 기준에 적합한 도시락 신상품 2~3종을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지역 경영주들에게 희망급식 바우처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상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홈플러스 “캠핑용품 할인”

25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각종 나들이·캠핑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2일까지 ‘나들이·캠핑용품 모음전’을 열고 홈플러스의 프리미엄 PB(자체상표)상품 ‘홈플러스 시그니처’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캠핑용품들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차박용품 20여 종을 마련해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억’ 소리 나는 신세계 임원 1분기 급여

평균 1.3억 작년보다 4.8%↑
호실적 이마트 1.59억 ‘최고’
현대백 6800만원 가장 낮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측면에서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선망의 자리, ‘샐러리맨의 꽃’이라 불리는 기업 임원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원 자리에 오른 이들은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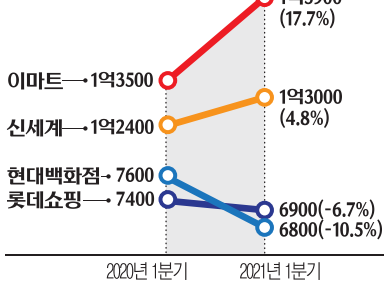
유통업계에선 어느 회사 임원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을까. 업계를 대표하는 ‘빅3(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가운데 현 시점까지는 신세계그룹(신세계·이마트) 임원이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조용히 흥얼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세계의 미등기임원은 26명이다. 이들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3000만원이다. 전년 동기(1억2400만 원)와 비교하면 4.8%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신세계의 영업이익이 81.1%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유통 빅3 미등기임원 보수 변화

(단위: 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반기부터 매출 회복세로 돌아서는 추세인 데다 올해 1분기엔 ‘사상 최대’인 12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이유 없는 급여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기간 이마트 미등기임원(33명)은 회사로부터 평균 1억5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전년(1억3500만 원)보다 17.7% 올랐다. 이마트의 호실적이 급여 인상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 임직원은 상반기 성과급을 그해 7월, 하반기 성과급을 이듬해 1월 수령한다. 지난해 거리두기에 따른 내식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이마트는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20조 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반면 롯데쇼핑(백화점·할인점·슈퍼 등)과 현대백화점 임원은 어깨가 움

츠러들었다.

가장 큰 폭으로 급여가 줄어든 곳은 현대백화점이었다. 올해 1분기 현대백화점 미등기임원 평균 급여가 68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10% 이상 줄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5% 늘어난 6조8330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2922억 원)보다 53.5% 줄어 1359억 원에 그친 만큼, 실적 부진에 따라 임원 평균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미등기임원(80명)의 1인 평균 급여액은 6900만 원이었다. 전년(7400만 원)과 비교하면 급여는 6.7% 줄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든 바 있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경쟁사와의 직접적인 미등기임원 급여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의 경우 그룹 오너 일가가 미등기임원에 포함돼 있어서다. 실제 신세계 미등기임원엔 정재는 명예회장과 이명희 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이마트엔 정용진 부회장, 롯데쇼핑 역시 신동빈 회장이 미등기임원에 올라있는 데 비해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은 현대백화점 등기임원에 포함돼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세븐일레븐, 국제 친환경 인증 업계 첫 AAA등급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UN 우수사례 선정 국제 친환경 인증인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에서 편의점 업계 최초로 최우수 등급 AAA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GRP는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대응 가이드라인으로 UN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국제 친환경 인증제도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평가에서 전사적으로 일관된 친환경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과 창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특히 올해 1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포하며 편의점 업계의 본격적인 친환경 활동 저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친환경 상품 출시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빨대없는 컵커피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PLA용기를 활용한 간편식 확대, 그리고 무라벨 생수 ‘얼썬얼수’ 등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상품들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운영, 일상 속 페트병을 바르게 버리기를 알리는 ‘라벨떼기는 말이야’ 캠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정원, 간편식 ‘호밍스’ 론칭

대상 청정원이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HOME:ings)’를 론칭하고 메인 요리와 볶음밥 등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정원 ‘호밍스’는 ‘홈(HOME)’에 현재 진행형을 뜻하는 ‘아이엔지(ing)’를 결합해 만든 브랜드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즐기는 ‘제대로 된 식사’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을 담아냈다. 대상은 청정원 ‘호밍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청정원 ‘호밍스’에서 첫선을 보이는 제품은 간단한 조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메인 요리와 볶음밥 제품이다. 메인요리에는 △연양식 바삭 불고기 △청송송 닭 불고기 △서울식 소불고기전골 △부산식 곱창전골 △춘천식 치즈 닭갈비 등이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탈모 걱정된다면, 두피 건강부터 챙겨야

아모레퍼시픽 ‘라보에이치’

아모레퍼시픽의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LABO-H)’가 두피 장벽을 강화해 두피 생태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탈모증상 솔루션을 제안하고 나섰다.

아모레퍼시픽라보에이치두피스킨연구소는 ‘피부·모발·성분·미생물·고객경험’ 등 5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10여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두피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성분을 개발해 라보에이치 제품군에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라보에이치 대표 제품인 ‘탈모증상 완화 두피강화 샴푸’는 두피 장벽 강화를 위한 두피스킨연구소의 특허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발효해물) 성분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해 탄생했다. 1회 사용만으로 초기세면지 99.8%, 두피 유분량 86.7%, 두피 각질량 32.1%를 제거하고, 두피 수분량 81.9%와 모발 윤기·탄력·볼륨 증가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라보에이치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제주 오설록 돌송이차밭에서 재배한 녹차에서 발했다. 라보에이치의 녹차 프로바이오틱스는 두피 위 생태계



의 균형에 관여해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 강화와 항염에도 도움을 준다.

라보에이치는 세정력에만 집중한 단순 샴푸가 아닌, 두피를 보호하는 클렌저를 선보이고자 주력했다. 비건과 알라젠 프리 인증으로 예민해진 두피에 전해지는 자극도 최소화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삼성 임원진 ‘자사주 쇼핑’ 미소 짓는 400만 개미

임원 14명, 주당 약 8만원에 매수
목표주가 하향에도 실적 자신감

업계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 등
반도체 분야 투자 매력 커질 것”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최대주주나 임직원이 지분을 늘리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통상 자사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11일에 장중 한때 9만6800원(종가 9만1000원)까지 치솟은 뒤 4개월간 7만원대로 추락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약 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임원진 14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대 가격에서 대거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가격은

보고자	변동일	매입 주식수	1주당 매입 가격	총 매입가격	보고자	변동일	매입 주식수	1주당 매입 가격	총 매입가격
김태영 상무	5월 10~21일	1400주	8만1314	1억1383만	김용관 부사장	5월 12일	1250주	8만	1억
이승욱 부사장	5월 18일	2000주	7만9950	1억5990만	고재필 상무	5월 4일	3700주	8만1700	3억229만
하혜성 전무	5월 13일	1000주	8만1500	8150만	조필주 전무	5월 3일	970주	8만1900	7944만3000
이길호 전무	5월 13~17일	280주	7만7385	2166만7800	노태문 사장	5월 6일	5000주	8만1700	4억850만
반효동 상무	5월 14~17일	1000주	7만9580	7958만	최윤호 사장	5월 6일	5000주	8만1700	4억850만
정인호 상무	5월 11~13일	258주	8만1699	2107만8342	오문옥 상무	4월 29~30일	3000주	8만2900	2억4870만
김형재 상무	5월 17일	500주	7만8600	3930만	안규리 사외이사	4월 30일	100주	8만2700	827만

24일 삼성전자 종가인 7만97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 보유주식을 신고한 김태영 상무는 지난 21일 7만9700원에 2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김 상무는 이달 초부터 총 1400주를 사들였는데, 한 주당 평균가격은 8만1314원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자 매입가를 낮춰 추가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초에는 최윤호 사장, 노태문 사장이 각각 5000주씩 주당 8만1700원에 사들

였다. 고재필 상무도 같은 가격에 3700주를 매입했다. 이어 김용관 부사장이 1250주를 8만 원에, 이승욱 부사장도 2000주를 주당 7만9550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밖에 하혜성 전무, 이길호 전무, 반효동 상무, 정인호 상무, 김형재 상무, 조필주 전무, 오문옥 상무, 안규리 사외이사 등도 8만 원 전후 가격에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자사주 매입은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삼

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주춤했지만 스마트폰과 소비자 가전에서 크게 선전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9조3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도체의 부진을 만회한 것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모바일(IM) 부문이었다. 1분기에 4조3900억원으로 반도체보다 많은 이익을 냈다. 휴대전화 8100만 대, 태블릿 800만 대를 팔았으며 평균 판매가격은 243달러(27만 원)이었다. 갤럭시 S21 출시를 3월에서 1월로 당기면서 1분기에 판매가 몰

렸고,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A 시리즈, 태블릿과 웨어러블 기기 등 갤럭시 생태계를 이루는 제품군의 판매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복미, 일본 등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역시 2분기를 시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비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로 최근 주가가 기간 조정을 보였으나 이 시기에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서버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3분기 이후 반도체 섹터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노트북PC, 스마트폰 등 컨슈머 IT 수요 둔화, 테이퍼링 논의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주가에 부담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하나금융투자는 목표주가를 10만1000원으로 낮춘 상태다. 이인아 기자 jih@

NH투자, 하나銀과 ‘옵티머스’ 법정공방 예고

펀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안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 의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수용



정영채(왼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등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 원대 법정 싸움도 벌이기로 했다.

25일 NH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100% 원금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익증

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의 배상안이다.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위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 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금을 보전해준 바 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황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위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위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를 낀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제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몸값 2兆’ 케뱅, 1년 만에 위상 ‘본궤도’

4개월새 가입자 250만명 급증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IPO

지난해 7월 자본 확충에 성공하면서 1년여 만에 본격 영업에 나선이후 케이뱅크 가입자가 최근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 말 247만 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증권가에선 “올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케이뱅크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PEF)들의 투자 참여로 케이뱅크의 ‘몸값’은 2조 원 대까지 올라섰다.

2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를 투자 유치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이후 유상증자 예상 금액을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최근 1조2000억 원까지 키워왔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를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세에 베풀려하는 문의가 쏟아져서다. 신한금융그룹 외에 기존 최대주주인 BC카드가 총증자액의 30% 규모로 참여하고,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 싱가포르투자청(GIC) 등도 들어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기

업공개(IPO)를 유력한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의 IPO 시 기업가치가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케이뱅크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IPO를 할 것으로 예측되며 예상 시가총액은 최소 8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 참여자들은 30~40%의 내부수익률(IRR)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알려진 것과 달리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규모와 일정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자자와의 기밀유지 협약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정확한 규모나 일정 모두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의된 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T의 자회사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케이뱅크 등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영업 재개 △수신 폭증 △자산 성장 △이자이익 증가의 수순을 순환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남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가 향후 중금리, 전·월세 대출 상품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2022년, 예상 IPO 시점은 2023년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위탁제 정비·선물 검토

한달새 30% 올라 1톤당 1.8만원
가격 안정화... 시장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전경.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대비 거래량 16.8배, 거래대금 44.6배 급증했다. 지난해 총 거래대금은 6200억 원을 웃돌며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등으로 큰 변동성을 겪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1톤당 4만900원에 거래되던 탄소배출권은 지난 4월 12일 1만4300원까지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이달 17일부터는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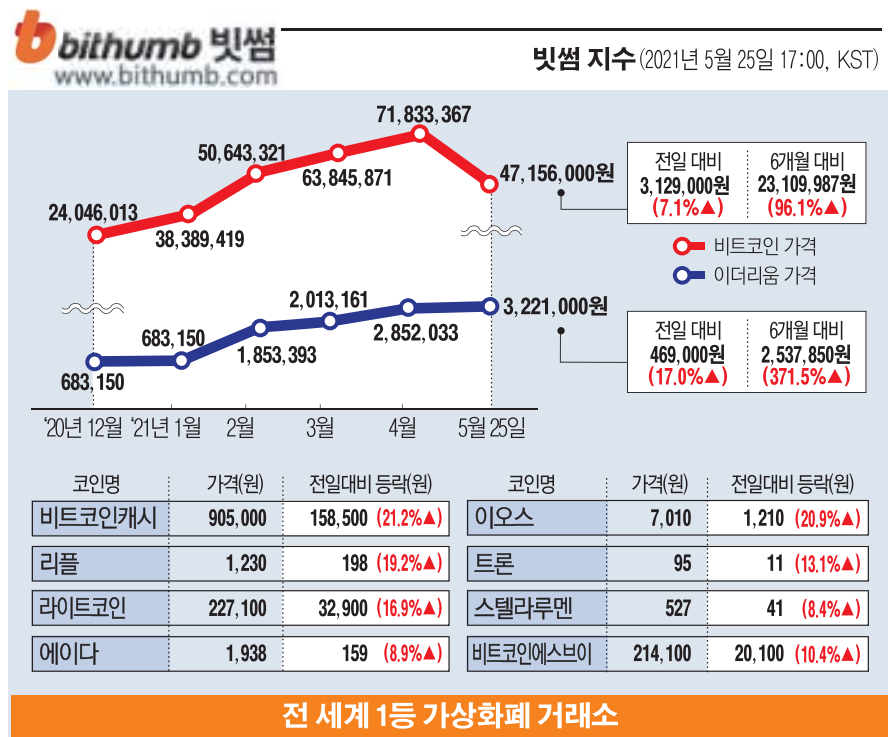
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현재 배출권 가격은 1만8000원 안팎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에 대해 지속해서 매수와 매도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거래소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권 시장 참가 대상을 현재 600여 개사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시장조성자가 아닌 증권사도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배출권 종목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인 배출권 선물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지향 정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GoodJob

KB굿잡과 함께 지금, 성공취업 ON

2021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2021.5.31^월 - 6.11^금

<https://kbgoodjob.kbstar.com>

검색창에 **KB굿잡** 🔍 검색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12-1호(2021.05.18), 광고물 유효기한 2021.06.11까지

 KB 국민은행

“10억 시세차익 원베일리는 그림의 떡” 실수요자 노릴 만한 ‘로또 단지’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내달 분양
전용 49㎡형조차 분양가 9억 넘어
계약부터 잔금까지 자력조달 부담

고덕강일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진입장벽 낮은 알짜단지 분양 앞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내달 분양시장에 나온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로또 분양’ 단지여서 청약시장의 관심이 온통 이 아파트 단지에 쏠려 있다.

하지만 눈을 바깥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내 집을 마련하면서도 적지 않은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 강남 외 수도권에서도 입주 후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한강변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한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내달 초 일반분양에 나선다.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관통하는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인 데다 2990가구 대단지여서 고가아파트의 상징인 ‘아크로 리버파크’의 명성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올해 서울 분양시장 대어로 꼽히는 건 뛰어난 입지와 함께 무려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시세 차익 때문이다. 분양가가 3.3㎡당 5653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전용면적 59㎡형이 13억~14억 원, 전용 74㎡형은 17억~18억 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로 옆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형이 지난해 26억 원

수도권 주요 ‘로또분양’ 예정 단지		※ 출처: 리얼투데이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가구)	일반분양 (가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2990	224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593	593
경기도 과천시지식정보타운	S8블록	659	318
경기도 광명뉴타운	광명2구역 재개발	3344	754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2 파라곤2차	1253	1253



에 팔린 뒤 호가가 최고 29억 원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예상 차익은 최고 10억 원 이상까지 커진다.

그러나 누구나 ‘로또 단지’를 거머쥘 수 있는 건 아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면적은 전용 49·59·74㎡형 뿐이어서 가점제로만 당락을 가리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 중 면적이 가장 작은 전용 49㎡형조차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되지 않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잔금대출마저 막힌다. 여기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2~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를 할 수도 없다. 사실상 청약가점 높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현금 부자’만 이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력 타입인 전용 59㎡형은 65점 이상이어야 당첨권에 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분양가와 담보대출 등의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다소 낮은 로또 분양 단지가 적잖게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청약 돌풍이 불었던 경

기도 과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S8블록 아파트(659가구)를 비롯해 광명뉴타운 2구역 아파트(3344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파라곤2차(1253가구) 등이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공공택지인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용 84㎡를 넘는 중대형 면적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추첨제로도 당첨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이 짓는 과천시지식정보타운 S8블록 단지는 과천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에는 총 57만명에 이르는 청약 인파가 몰린 바 있다.

최근 청약 광풍이 휘몰아친 동탄2신도시에선 연내 4곳에서 추가 분양이 이어진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를 비롯해 동탄2 파라곤 2차, 동탄2 금강펜테리움 6차(1103가구), 동탄2 제일풍경채(308가구) 등이다. 앞서 이달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시세 차익이 9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1순위 청약에서 80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올해도 거침없는 ‘노도강’

‘도봉’ 집값 상승률 28.1% 1위
‘노원’ 24.4% ‘강북’ 23.7% ↑
전셋값 급등에 매매 수요 몰려
지난해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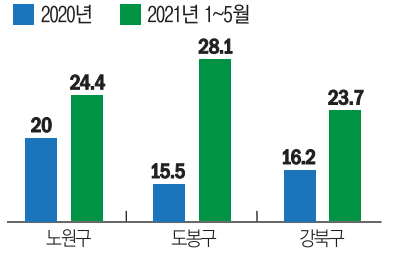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별 실거래가 상위 1000위 이내 단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봉구(28.1%)였다. 이어 노원구가 24.4%, 강북구가 2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도강은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높은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원구가 20.0%, 강북구 16.2%, 도봉구 15.5%였다. 지난해 집값이 반영된 국토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노원구는 34.6%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인상을 기록했다. 도봉구 26.2%, 강북구도 22.3%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 평균(19.9%)을 웃돌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노도강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도 4.4~12.6%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실제로 도봉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동아청솔’ 전용면적 84㎡형은 3월 11억4800만 원에 팔렸다. 역대 최

‘노도강’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단위: %, 실거래가 기준)



고가 거래다. 작년 3월 8억4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1년 새 3억300만 원가량 올랐다. 현재 호가는 최고 15억 원에 달한다.

노원구 대장주 아파트 ‘청구3차’ 전용 84㎡형도 2월 14억2000만 원에 매매됐다. 작년 2월 9억8000만 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4억4000만 원 오른 것이다. 현재 호가는 14억 8000만 원 수준이다.

도봉구 창동 C공인 관계자는 “2·4공급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노도강 주택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며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는 늘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호가는 계속 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셋값 급등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 것도 노도강 아파트값 상승에 한몫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노도강은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라며 “여차피 비싼 전세에 사느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의 노도강에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현대건설, 층간소음 잡는 ‘고성능 바닥구조 시스템’

건설사 첫 현장인증서 획득

현대건설은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은 기존과 다른 고성능 완충재(복합 고급소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이다. 고성능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 극대화를 위해 특수 점탄 소재를 사용했다. 바닥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조정해 저주파 충격진동 전달을 차단해 층간소음, 특히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고성능 완충재는 현대건설이 층간차음 전문 협력사와 함께 공동 개발했다. 최근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검증



고성능 완충재 시공 모습. 사진제공 현대건설

받아 현장 인정서를 건설사 최초로 획득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현장을 선정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첨단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최상의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현대ENG, 2.7兆 폴란드 플랜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폴란드에서 2조7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폴란드 푸오츠크에서 야첵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다니엘 오바이텍(Daniel Obajtek) PKN ORLEN 사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서명식

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마조프셰주(州) 푸오츠크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해 연간 74만 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스페인의 T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리더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은 55%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덕소2’ 관리처분인가, 탄력 붙은 덕소뉴타운

경기 남양주시와부읍 덕소뉴타운 내 덕소2구역이 재개발 사업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덕소2구역은 지난 21일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9년 만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이후 과정은 이주·철거 작업 후 착공 단계를 거쳐 일반 분양만 하면 된다.

덕소2구역은 약 5만㎡ 규모로 재개발 이후 999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발 시공은 라온건설이 맡았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덕소초와 맞닿아 있다. 외부중·고와도 가까워 정비사업 완료 이후 준수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인근D공인중개관계자는 “덕소2구역은 따로 진입로가 없고 제대로 된 상가도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덕소2구역은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이므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덕소2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으로 덕소뉴타운 재정비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덕소뉴타운은 남양주시 남단에 있는 곳으로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와 한강을 놓고

덕소뉴타운 주요 구역 진행 상황

덕소2	관리처분인가 승인
덕소3	시공사 선정
덕소4	조합설립인가
덕소7	분양(단지명: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도곡1	분양(단지명:덕소 강변 스타힐스)
도곡2	관리처분인가 승인

※ 출처: 남양주시청



999가구 아파트단지 탈바꿈 ‘덕소7’ ‘도곡1’ 청약 흥행몰이 뉴타운구역 빌라 몸값 ‘들썉’

마주 보는 곳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속한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느리게 진행돼 15년 이상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덕소7구역과 도곡1구역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올해 초 재개발 공사에 들어갔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분양도 잘됐다. 두 곳 모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하는 등 청약 경쟁도 치열했다. 덕소7구역을 재개발한 ‘덕소강변 라온프라이빗’ 아파트는 평균 16.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곡1구역 재개발 단지인 ‘덕소 강변 스타힐스’는 전용면

적 84㎡형에서 최고 경쟁률 507대 1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 역시 24.1대 1로 집계됐다.

재개발사업 진행 기대감으로 덕소뉴타운 내 빌라 몸값도 많이 올랐다. 덕소2구역 내 광신주택 전용면적 37㎡형 매매 호가는 현재 4억20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12월 2억5000만 원에 팔렸다. 5개월 만에 1억7000만 원(68%)가량 오른 셈이다.

남양주시에는 다산·별내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데다 앞으로 3기 왕숙신도시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적지 않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남양주시 주택시장의 중심축이 이미 다산·별내신도시로 옮겨간 데다 곧 왕숙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덕소뉴타운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극단적 선택’ 막을 수 있었다”

사망 전 수차례 업무 스트레스 호소했으나 모두 묵살
서일노 측 업무환경개선안에도 “검토·고민 중” 답변만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주무관 A(40)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한 ‘고졸성공시대’ 정책과 시설직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

고졸성공시대는 2015년부터 교육청 소속 기술직(9급) 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 졸업자 선발 인원 비중을 기존 30~4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일노와 A 씨 유족은 갑자기 늘어난 고졸 채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로 기술(시설과)직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본보 5월 17일자 4면 참조>

기술직 직원들은 이러한 고충은 2016년과 2019년, 2020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19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현장 행정 실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 일반 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또 “이들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온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2년 뒤 7급이 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

서일노·A씨, 고졸전성시대 및 시설직 업무 개선 요청 경과

2014년	11월 21일	조희연 교육감, 고졸전성시대 추진계획 발표
2016년	11월 11일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강구덕 시의원, 고졸전성시대 지적)
2018년	2월 4일	서울시교육청 11개 학교시설지원과 멘봉상태(서일노 성명서)
	2월 26일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문제점·개선안 전달 및 화신요청(서일노→서울시교육청)
	3월 12일	지방공무원인사제도 문제점·개선안 전달 및 화신(서울시교육청→서일노)
2019년	1월 14일	서일노·한국노총서울본부의장, 조희연 교육감 간담회
	9월 3일	지금 여러분의 학교는 안전합니까?(서일노 성명서)
	11월 1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여명 시의원, 고졸전성시대 지적)
2020년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이석주·이호대 시의원, 시설직 업무 개선)

서가 깨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일노는 A 씨와 함께 기술직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서일노는 2018년 2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3월 “서일노의 견 등을 수렴해 기술직간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인사제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신했다.

서일노는 2019년 1월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기술직 직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서일노 측은 이 자리에서 “시설 직렬 고졸 공채 50% 채용비율 하향(20%) 조정 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은 “검토하겠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준 서일노 위원장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A

씨의 극단 선택의 원인 중 하나인 고졸전성시대 등 시설직 조직 및 업무 문화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올해 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제대로 된 시설·업무 환경 개선과 정책 수정 조치만 있었어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고졸 공채 선발 비중을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며 “시설과(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부분 등은 한 직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직렬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범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 각각 병가를 내고 휴직을 했지만 이 기간 1주일에 2~3번, 주말에도 1시간 넘게 업무 전화에 응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오세훈 첫 추경 4.2兆 “민생·도시경쟁력 강화”

청년 월세지원 5000명→2만7000명 5배 이상 확대
‘오세훈표 복지’ 첫선… 지하철·마을버스 손실 보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4조23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이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1인 가구 대책’은 물론 대중교통 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서울시는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수·고용 부진으로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민생 경제 살린다” 3360억 원 편성=서울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늘린다.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 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도 한다.

사실상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오세훈표 복지’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병행 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에 각각 3억4200만 원,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4029억 원 투입해 미래 대비=서울시는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40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전기차

·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 올해 지원 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정 무임수송 손실(예상)분의 일부 500억 원을 올해 3월 지원했다.

연말 부족자금 예상액 일부인 500억 원을 추경안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에도 총 410억 원을 지원해 적자업체 재정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오 시장의 ‘경영합리화’를 요구에 따라 직원 1000명을 줄이고 심야운행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오늘 김오수 인사청문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나경원, 지인 자녀 특채 의혹’ 서울고검 “문제 없다” 항고 기각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 자녀 특채채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 항고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포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SOK는 별도로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인 B 씨에게도 입사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SOK가 시행한 임원 면접에 A 씨가 불참했다. SOK 측은 A 씨가 대기업에 합격해 임원 면접 당일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OK는 B 씨를 채용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을 역임하며 지인의 자녀인 B 씨를 2013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B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B 씨의 채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나 전 의원과 관련된 항고 사건 중 공소시효 문제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올해 1월 항고한 나 전 의원 딸 입시비리 등 13건의 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김종용 기자 deep@

檢, 조대식 의장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수전역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헌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3M 법인세訴 1심 승소

한국쓰리엠이 거래 대상 기업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와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에 비례해 약 12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비용을 모두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회계 방법이다.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해외 법인 판매 물량을 계산한다는 내용 없다며 이를 제외한 손금산입만 인정해 약 3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약정은 해외 법인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도 겸해 체결된 것이므로 목표 물량에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안정적 투자’에 집중할 때

요즘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화두는 단연 ‘재테크’다. 옐로(YOLO·한 번뿐인 인생),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 현재 행복을 추구하던 삶은 지나가고, 조기은퇴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파이어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 흐름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증후군(FOMO)도 만연하다. 자산을 가지지 못한 이와 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지자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누군가 돈을 크게 벌었다는 말에 솔깃해 성급

하게 뛰어드는 건 더욱 위험하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 시장이 조정장을 겪으면서 경제적 손실만 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 위험이 반드시 고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시기일수록 직접 증권사 문을 두드려 안정적 투자 수익, 위험 분산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펀드, ETF랩,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추천 상품으로 제시한다.

해외 혁신기업에 분산... 외화로도 가입 가능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미래에셋증권은 초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마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주목할 랩계약으로 ‘Global X ETF랩’을 꼽았다.

‘Global X ETF랩’은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되는 계약으로써 현재 누적 잔고 1500억 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테마형 ETF랩 계약이다.

특히 클린에너지, 클라우드, 디지털헬스케어, 게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lobal X ETF랩’은 올해 들어 4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유입되면서 현재 잔고는 1500억 원(2021년 5월 3일 기준)을 넘어섰다.

‘Global X ETF랩’의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며 중도입출금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원화와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 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혁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Disruption ETF(KEJI)가 최근 상장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Global X 상품임에도 검증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주가 급변 시 유동성 문제로 보유 종목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범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단기 수익률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정부 추진 뉴딜정책 수혜 산업 중심 운용

하나금융투자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

하나금융투자는 디지털과 친환경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를 강력 추천했다.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을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한다.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이 리서치센터와 협업해 각종 분석을 받아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한다.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는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중심자가 되기 위해 ‘5G’와 ‘인공지능(AI)’, ‘인터넷/디지털 플랫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녹색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주식과 우량 금융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 및 관련 ETF에 투자한다. 뉴딜 정책의 성격에 맞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손님들이 ‘하나 뉴딜금융테크랩V3’을 통해 정부의 뉴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함께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 뉴딜금융테크랩 V3’는 선취형과 기본형으로 나뉜다. 최저 가입 한도는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시 추가로 입출금할 수 있으며 최저가입금액을 웃도는 선에서만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선취형의 경우 선취 0.7%에 후취로 연 1.0%가 부과되고, 기본형은 후취로 연 1.2%가 부과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만기 해지를 하지 않으면 연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선취형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저평가 가치주 선별 빠른 이익실현 추구

한국투자증권

마이더스액티브가치펀드

지난해 세계 증시 상승의 주역이었던 기술주, 성장주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기술주에 가려 시장에서 소외됐던 가치주 섹터에는 투자자들이 물리고 있다. 금융, 산업재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치주 종목들의 재평가가 이뤄지면 이들 종목을 중점적으로 담은 펀드 중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마이더스액티브가치펀드’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주 펀드다.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현재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아 잠시 소외된 주식, 주주환원정책의 지속 및 개선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사놓고 장기간 기다리는 방식의 투자보다는 적정가격에 이르면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을 지향한다.

이 펀드는 저평가 주식의 가치가 현실화되는 타임라인을 1~2년 안팎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한다. 목표주가 달성시 즉각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주가 급등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한다. 자연히 종목별 보유 기간도 다른 가치주 펀드보다 짧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수익률을 고려해 이를 웃돌 수 있는 매매 타임라인을 파악해 목표주가를 설정한다.

특히 대형주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다른 가치주 펀드들과 달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확신이 있다면 코스트다 중소형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높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거나, PBR 등 정량적 지표가 절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며, 정량적 분석과 리서치 기업분석 모델을 활용해 기업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 중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와 기업 고유의 무형자산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 자본 효율성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인아 기자 ljh@

소비자 충성도 높은 명품 브랜드에 투자

삼성증권

삼성 픽테 프리미엄 브랜드 펀드

삼성증권은 브랜드 우수성 보유 및 소비자 열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픽테 프리미엄 브랜드’ 펀드를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스위스 픽테자산운용의 ‘Pictet Premium Brands Fund’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명품, 스포츠, 레저, 화장품 등 소비자 전반에 걸쳐 일반 브랜드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높고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기업을 3가지로 분류해 분야별 전세기 핵심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첫 번째 분야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프리미엄제품들은 ‘브랜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상품 대비 우수한 성과 실현이 가능하다.

두 번째 분야는 여가(Leisure)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레저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펜데믹으로 인해 억제된 여가에 대한 소비는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 분야는 생활방식(Lifestyle)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웰빙과 목적의식,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품 및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픽테프리미엄 펀드는 약 30~50종목(2021년 3월 말 기준, 투자 시점 이와 달라질 수 있음)에 투자하며 투자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49%, 프랑스 25%, 이탈리아 6%, 영국 5% 순이며, 섹터별 비중은 명품 38%, 스포츠 16%, 식음료 14%, 화장품 12% 순이다.

이 펀드는 2020년 1월 국내펀드 출시 이후 2021년 4월 말 기준 세전 31.8%의 누적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비교지수 대비 6%포인트가량 우수한 성과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 픽테 프리미엄브랜드 펀드는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한 투자를 통해 거시경제 및 외부충격에도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잘 발굴해 투자하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직접 주식 매매·상품 거래... 다양한 세제 혜택

NH투자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NH투자증권은 고객이 직접 주식과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지난달에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출시와 함께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완전무료 이벤트 등 경쟁사 대비 혜택이 가장 큰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중개형 ISA 강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이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때 수익과 함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와 비교 때 절세관점에서 유리하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중개형 ISA를 기념해 투자자들의 목돈 만들기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수수료까지 받지 않는 매매수수료 완전무료(가입 시점 기준 1년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가입자와 함께 은행 등 타 금융사에서 NH투자증권 중개형 ISA로 이전하면 이전일로부터 1년간 완전무료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중개형 ISA의 원활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전담조직을 중개형 ISA 오픈 일정에 맞춰 운영한다.

ISA 전담조직 고객응대 채널은 고객지원센터로 연결해 65번으로 누르면 기존보다 빠른 상담 연결이 지원된다.
손임지 기자 eom@

중국 4차산업 테마별 선두기업 중점투자

KB증권

KB통중국4차산업증권자투자신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생활방식과 산업은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4차산업은 더욱 주목을 받는 테마가 됐다. 4차산업은 언택트 업무처리와 생활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과 기술인 만큼 투자가치가 높다.

이에 KB증권은 중국 및 홍콩 등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 중 언택트 트렌드 확산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 관련 테마 선두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추구하는 'KB통중국 4차산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중국 4차산업 기술의 경쟁력,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반도체 굴기 △스마트폰 밸류체인 △로봇+공장자동화 △차세대 유니콘 등 5개 테마를 선정해 테마별 선두기업에 투자한다.

우선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선두 인터넷 기업들과 방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AI+빅데이터'를 테마로 꼽았다.



이어 △'반도체 굴기' 분야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투자자금 등을 조선하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5세대 이동통신(5G)와 차세대 통신 기술관련 특허 등 이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5G+스마트폰'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로봇+공장자동화' 테마와 클라우드 서비스, 전기차 밸류체인, 바이오테크 등 △'차세대 유니콘기업'도 테마로 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중국 정부 주도하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밝은 기업성장이 전망되며, 홍콩과 중국 본토 중소형 고성장주 편입을 통해 추가 알파수익 창출을 노려볼 수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펀드 전문가 전략회의 거쳐 자산 리밸런싱

메리츠증권

메리츠펀드마스터Wrap

메리츠증권이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Wrap(랩)'을 판매 중이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또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매월 자산배분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



하다.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고수익 지향형 이상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투자일임 수수료는 연 1.5%로, 예탁자산 평가액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분기 단위(1, 4, 7, 10월)로 징수한다. 투자금 일부를 출금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편입된 펀드 중 환매일이가 장 낮은 펀드의 환매일에 지급된다. 펀드는 청산해지만 가능하며 현물 해지는 불가능하다. 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ESG 반영 '빈틈없는 미래 준비 회사' 엄선

신한금융투자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

신한금융투자는 높은 수준의 기업 책임을 진 회사에 투자해 투자수익 보호 및 강화를 추구하는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펀드를 추천했다.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는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하고 단순히 '착한 기업'이 아닌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ESG 기준이 낮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파업, 소송, 부정적 여론과 같은 다양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재무적인 위험 모니터링 강화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진화된 투자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ESG를 고려한 투자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투자에 접근한다.

환경 요소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환경 규제와 좌초자산 등의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회피하며 그린뉴딜 수혜주, 기업별 배출권 구매비용 등 규제준수비용 관련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요소의 경우 인적자원, 브랜드 이미지 등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점



점해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또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 수립, 내부통제제도 및 감시기구를 보유하며 기업활동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은 기존 ESG 평가를 통한 접근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위험대비 수익률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 ESG 관련 다양한 이슈, 테마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30%를 투자하며 정부 정책 및 환경 규제 수혜주에 집중한 선별 투자로 초과수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는 단기적 변수에 적응력이 높고 장기 성과를 높이는 강한 포트폴리오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글로벌 상장 리츠 투자 안정적 수익 추구

대신증권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

대신증권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대신자산운용이 처음으로 출시하는 리츠 펀드로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리 민감도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배당수익의 복리효과를 고려해 자산보유 기간 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또 가격 하락 위험 등 변동성을 통제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추구한다.

이 상품은 자산의 가격,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한 트레이딩 알고리즘과 해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 역량을 활용해 리츠를 발굴한다. 주요 투자지역의 실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우량 종목을 선정한 다. 분산투자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선진국 부동산 관련 리츠 상장지수펀드(ETF)도 일부 편입해 운용한다.

글로벌 리츠 투자 전문운용사인 러셀(Russell Investments)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동산 투자 경력 총 50년 이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20년의 평균 경력연수를 보유한 150명 이상의 연구팀으로 구성된 러셀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팀이 글로벌 리츠 시장 내 리츠 자산의 가격 괴리 현상을 추적해 적절한 매수 시기를 포착한다.

한 노출형 및 한 헤지형 상품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탁보수는 연 0.76~1.36%이다. 환매수수료는 없으며, 상품가입 및 상담은 대신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PC프로그램(HTS), 모바일앱(MTS)에서 가능하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절세혜택도 있어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공모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9.9% 저율 과세)을 적용받는다.

김우람 기자 hura@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 LH가 함께 만듭니다.

LH가 생각하는 주거복지는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거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LH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를 위해
LH가 지금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이란?

LH가 주거복지재단 · NGO와 협력하여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37만 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공공-민간 협력사업입니다.

LH콜센터 1600-1004

경제외교 이어 한미 우호관계 강화 팔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애틀랜타 ‘한국전 영웅 추모식’ 참석...조지아주서 명예시민증
현지 상공회의소와 ‘아시안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키로 합의
워싱턴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에 100만 달러 기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미 기간 경제외교 뿐만 아니라 한미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 회장은 24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린 ‘한국전 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희생을 기렸다. 추모식에는 참전용사 20여 명과 프랭크 블레이크 조지아주 한미친선협회 이사장, 박선근 애틀랜타 한미우호협회장, 래리 엘리스 전 육군 예비역 대장, 톰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과 지역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흑인인권운동을 이끈 조지아 정계의 대표 인물인 앤드류 영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전 애틀랜타 시장)도 참석할 정도로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목을 끌었다.

추모식장에 도착한 최 회장은 참전용사를 한 명씩 찾아 인사한 뒤 한국전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조지아 출신 전사자 740명의 명부가 새겨진 비석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최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조바이트 대통령이 올해 94세인 조지아 출신 참전 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SK는 해외기업으로는 조지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 조지아를 ‘고향’으로 여기는 파트너가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SK와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하길 희망하는 의미에서 최 회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증정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건너가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추모의 벽’ 사업은 기념공원 안에 원형 모양의 화강암 벽을 세워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당시 연합군 지원 한국군) 4만3800여 명의 이름을 새기는 사업이다. SK는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했다.

곳은 날씨에도 존 틸러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군사령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린 ‘한국전 영웅 추모식’에 참석해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헌화를 한 뒤 묵념하고 있다.

과 버나드 샴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 윌리엄 볼 전 해군장관 등 재단 이사진이 대거 참석해 최 회장을 환대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한미 혈맹의 의미를 기렸다.

최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방문에 앞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MAC) 케이트리 키파트릭 회장과 기업 대표들을 만나 ‘아시안 리더십 프로그램’ (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지아 지역 아시아계 소상공인에게 SK와 조지아 경제단체가 경영정보, 마케팅, 홍보, 멘토링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최 회장은 오후엔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배출한 모어하우스 대학을 찾아 데이비드 토마스 총장과 환담한 후 조지아 지역 우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어하우스 대학이 우수 인재를 선발, 한국에 유학을 보내 학위를 취득하게 하거나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

‘세계 1위 부호’ 잠깐 이름 올린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아마존 주가↑...베이조스 바로 복귀

세계 최대 명품업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72·사진) 회장이 24일(현지시간) 잠깐이지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포브스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순위에서 따르면 아르노 회장 일가의 순자산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863억 달러(약 209조 2700억 원)를 기록해 베이조스 CEO(1860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LVMH 주가 상승으로 아르노 회장의 순자산이 불어난 영향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베이조스와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473억 달러의 자산으로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오후 들어 아마존의 주가가 1% 넘게 오르면서 베이조스의 순자산이 1882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아르노 회장(1873억 달러)을 누르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포브스는 지금까지 미국의 독무대였던 세계 부호 순위에서 아르노 회장이 유럽인 최초로 세계 부호 순위의 정상에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최고 부호 자리는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잠시 1위에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대부분 미국인이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아, 창립기념일 맞아 걷기 기부 캠페인

내달 6일까지 1보당 1원 적립, 1억5000만원 달성 목표

기아가 창립 기념일인 5월 25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기아는 창립 기념일을 전후해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를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 주간(Kia Movement Week)’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기부 활동을 펼친다. 기아는 2015년부터 창립 기념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아는 △움직임을 통한, 움직임을 위한 기부 △걷기를 통한 저탄소 생활수칙 실현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임직원 걸음 1보당 1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도록 해 총합 1억5000만 보(기부금 1억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업장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걸음기록 플랫폼 업체 ‘빅워크’, 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



사문화’와 협력하기로 했다.

기아는 캠페인으로 적립한 기금을 저소득 지적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구를 기부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임직원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의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사회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임직원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 창립 기념일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진 ‘호프테이프’ 1년간 30만개 택배에 부착

‘장기실종아동 찾기’ QR코드 경찰청 앱 연동 등 캠페인 강화키로

(주)한진은 작년부터 경찰청과 진행한 장기실종아동 찾기 ‘호프테이프(Hope-Tape)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호프테이프는 장기실종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과 경찰청의 나이변환 몽타주 기술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등 실종아동 정보가 담긴 테이프를 택배 상자에 부착,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위해 경찰청이 기획한 캠페인이다.

(주)한진은 지난해 5월부터 동서울 허브 택배터미널(서울북합물류)에서 발송되는 택배박스에 호프테이프를 부착한 것을 시작으로 1년간 호프테이프가 부착된 약 30만 택배박스를 고객에게 배송했다.

(주)한진과 경찰청은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호프테이프 캠페인을 강화한다. 신고 편의성 개선을 위해 호프테이프에 인쇄된 QR코드를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드림 앱과 연동



해 실종아동에 대한 조회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 지문 등을 사진에 저장해 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주)한진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호프테이프를 판매하고 참여를 제안하는 등 캠페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한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매년 증가하는 택배 상자처럼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플레이스케이 제이슨 표 대표

플레이스케이 제이슨 표 대표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레이스케이네이버스노우와 AI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가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제이슨 표 대표의 대표를 구글에서 통신 및 이머징테크 인더스트리 매니저를 지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BNP파리바, 제이피모건 등에서 마켓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또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기업전략, 신사업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담당, 전략기획, 투자 및 글로벌 조직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규 ◇과장급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철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

◆우정사업본부 ◇4급 전보 △홍보협력담당관 신봉현 △노사협력담당관 최종묵 △우편집배과장 박상우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노기섭 △예금증권운용과장 윤원근 △예금대체투자과장 임성민 △보험개발심사과장 이원 △보험사업과장 김길석 △보험증권운용과장 강영일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희중 △서울서초우체국장 박상태 △동서울우편집배국장 강연수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문정현 △용인수지우체국장 이철규 △해운대우체국장 정지훈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안승도 △" 사업지원국장 성채경 △대전유성우체국장 류일광 △대전둔산우체국장 한태희 △청주우체국장 강기병 △충북 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 박석봉 △광주광산우체국장 김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승진 △기획조정실장 주양국 △노사경영지원실장 채일순 △마케팅2실장 박찬두(이상 1급) ◇전보 △소통실장 오용식 △감사실장 김문락 △강남코엑스점장 박희식 △강북힐튼점장 고경훈 △부산롯데점장 정수용(이상 실점장)

◆안전성평가연구소 △부소장 윤석주

부음

▲전연숙 씨 별세, 신경희(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장)씨 모친상, 채남기(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 씨 장모상 = 25일, 경기 시흥시 시흥장례원. 발인 27일, 031-434-4114

▲송득영 씨 별세, 심소영 씨 남편상, 송인숙·인국(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씨 부친상 = 24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31-219-4581

▲이한용(전 명지대 총무과장) 씨 별세, 이동식(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상무) 씨 부친상, 이원희(에너지경제신문 기자) 씨 조부상 = 25일, 서울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633-4455

▲정정숙 씨 별세, 안주홍(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씨 부인상, 안정빈(경남대 법대 교수)·지윤(에이아이더뉴트리진 수석연구원) 씨 모친상 = 24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2-860-3503

▲박두만 씨 별세, 전종업 씨 남편상, 박미숙·미정·희정(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팀장)·민준(마포경찰서 경위) 씨 부친상, 박정수(사업)·차봉준(사업)·박문규(경향신문 경향플러스국장) 씨 장인상, 문현숙 씨 시부상 = 24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11시 45분, 02-2030-4455

▲이명영 씨 별세, 홍성희·성규(정우신약 관리이사) 씨 모친상, 문봉희(제일파마홀딩스 부사장) 씨 장모상 = 24일, 경기도 안양시 메트로병원 특실 2호, 발인 26일 오전 10시 30분, 031-449-9000

원유니버스 백두산 대표 선임

와이제이엠게임즈는 메타버스 전문회사 원유니버스를 설립하고 백두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유니버스는 2016년부터 VR업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원이멀스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앞으로는 기존 와이제이엠게임즈의 관련 사업 경험과 VR노하우를 살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두산 대표를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2005년 넥슨에 합류해 메이플스토리 해외 총괄 디렉터와 메이플블리츠X 테크니컬 디렉터를 지낸 바 있다. 게임산업에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한 15년 경력의 개발 전문가로 액션스퀘어 CTO(최고기술경영자)를 겸임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유럽은 지금



김 현 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거대 도시권역화의 장점은 효율성과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행정적 편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역의 형성은 상업 밀집지역과 베드타운이 유리되어 통근 시간을 늘림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다. 직장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유기적 관계를 변질시킨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계신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즉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주소지가 읍·면이거나 소도시에 살고 있다면 잠시 고민이 될 것이다. 도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동안 각 지역, 나라마다 서로 다른 ‘도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도시발전 전략을 서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엔 인간거주계획(UN-Habitat) 및 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 6개 국제기구는 지난 5년 동안 연구조사를 통해, 기능적 도시 권역(FUA)을 표준화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도시를 인구 규모에 따라 소형(5만~10만), 중형(10만~25만), 대형(25만~150만), 거대(150만 이상) FUA 4개 단위로 구분하였다. 해당 구분은 단순히 행정단위 구획에 따른 인구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 우선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살고 있어야 도시로 간주된다. 이때 도심은 최소 5만 명 그리고 1㎢ 당 최소

1500명의 밀도를 띠어야 한다.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중심 FUA로 통근하는 인구가 15% 이상인 경우, 그 도시는 해당 FUA의 통근구역(commuting zone)으로 통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해는 부산 FUA에 속한 지역이며, 인천, 수원 및 경기도에 위치한 다수의 도시가 서울 FUA에 속한다. 전 세계 각 국가를 대상으로 FUA의 재분류는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위성으로 촬영된 토지를 면적 1㎢의 셀 격자(grid cells)로 나눈 다음, 각 셀 당 최소 1500명 이상인 모든 셀을 선택한 후, 최소 5천명 거주민이 있는 클러스터만 남긴다. 마지막 단계로 각 클러스터의 겹을 별도로 채우는 작업을 시행한다. 전 세계 각 지역 및 국가별 조사 결과는 기존의 도시 통계조사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기존 분류에서 미국과 유럽, 남미 등이 높은 도시화 그룹이었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조사에서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 정도가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신규 조사에서 국토 면적과 인구를 대

비한 FUA 형성 개수는 해당 국가의 거대 도시권역화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 조사에서 세계 19개 지역 중 상위 포진했던 북유럽(2위), 서유럽(4위), 남유럽(6위)은 새로운 방식의 조사에서 각각 7위, 17위, 13위의 순위를 나타냈다. 조사결과는 이들 유럽지역이 도시화 정도와 거대 FUA 단위 형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비교적 작은 단위의 FUA를 다수 형성하여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FUA 형성 개수에 대한 유럽 주요국가의 수치를 살펴보면 영국 96개, 독일 95개, 프랑스 88개, 이탈리아 84개, 스페인 81개 등이다. 한국 22개, 일본 63개인 아시아 지역과 비교할 때 다수의 중소형 FUA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대 FUA의 개수는 독일이 95개 FUA 중 7개 권역, 이탈리아가 84개 중 4개 권역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은 22개 중 4개 권역, 일본은 63개소 중 6개 권역이 형성되어 있다. 거대 도시권역화의 장점은 효율성과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행정적 편이성 등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역의 형성은 상업 밀집지역과 베드타운이 유리되어 통근 시간을 늘림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다. 직장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 유기적 관계를 변질시킨다. 게다가 코로나와 같이 군집, 이동 등이 불리한 상황에서 거대 도시권역화의 문제점은 두드러진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등 유럽 FUA들은 거대 도시권역 형성의 피로감을 줄이고, 생태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병원, 쇼핑 등 생활환경 이동 시간을 15~20분으로 줄이는 분산형 도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경제, 환경, 사회적 가능 및 행정, 지역문화 유지 등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여 존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시모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치를 인식하여 도시권역화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

윤 병 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대기업이 제조, 마케팅, 물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합권을 쥐고 운영하던 오프라인 중심 체계나 패턴이 최근 시장 생태계에서 원형이 통용되지 않는다. 해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국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플랫폼을 장악해 새로운 거대 기업이 됐다.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을 좌지우지하며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소상공인 중심 생필품 업역까지 진입해 자본력과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지역개발로 임대료가 상승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기존 오프라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 물림이 지역 상권의 문제를 넘고 있다. 앞친 데 덮친 코로나19는 소상공인에게 시련의 세월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 온라인소매물 거래액을 161.1조 원으로 집계했다. 2010년 25.2조 원 대비 10년 사이 6.39배 성장, 전

소상공인의 새 승부처, 온라인 플랫폼

년 대비 26.1% 증가한 규모다. 이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코로나19 이전의 소비패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이제 온라인 쇼핑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의 준비가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선, 정보수집 방법을 터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정보는 암묵적 지식 형태의 내재된 아이디어를 명시적 지식 형태로 끄집어 내 사업경쟁력을 올리는 원천이다. 소상공인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발굴해 탑재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도메인에 정보 제공 기관을 링크해 방문한 소비자가 최근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의 사이트에 다양한 소비자가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획득하는 즐거움과 학습의 새로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수집과 제공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을 이끌고 가는 동력을 원천으로 삼아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경쟁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열린 기회가 비즈니스로 연결되게 긍정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 줘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소비자 사이 상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가치사슬과 공급사슬의 연결고리에 성과공유 철학을 심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소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자율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소비자 신임을 얻도록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일을 맡긴 자의 가치를 갚아 먹는, 대리비용을 쓰는 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관련 사업의 기술혁신을 늘 염두에 두고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고 전략적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 좁게 그리고 멀리, 넓게도 본다. 꿈을 비전으로, 비전을 전략으로,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강령도 세운다. 기술혁신을 통해 잠재 역량을 끌어올리고 사업과 시장의 관계를 상황에 맞춰 재정립한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육성하려면 남다른 전략, 차별성으로 소비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화된 서비스 기준은 특정돼 있지 않지만 일을 맡긴 자가 흔

쾌히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적 서비스로 여길 수 있다. 브랜딩을 위한 장소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소비자를 위한 작고 집중화된 전문가가 되어 한다. 소상공인이 나갈 방향은 빠른 속도로 혁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열린 사고로 상황에 맞춰 실행 속도를 높이고 기민히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장점을 활용한다. 손자병법 허실(虛實) 편에 군대의 모습이 물을 닮아야 한다는 고사성이 병형상수(兵形象水)가 나온다. 소상공인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물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코로나19에도 살아남는 소상공인은 새로운 기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행할 줄 아는 자들이다. 대기업의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탑재하면 크고 작은 온라인 플랫폼의 바퀴가 굴러 플랫폼 생태계 선순환이 일어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승결의 시작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르틴 하이데거 명언
“언어는 존재의 진실이 거주하는 집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평생 ‘존재’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으로 일약 유명해졌으나 독일인들조차 ‘이 책의 독일어 번역본은 언제 나오는가’라고 농담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책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됨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889~1976.
☆ 고사성어 / 허실생백(虛室生白)
방을 비우면 햇빛이 그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환하게 밝아진다는 말.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비유한다. “저 공허한 경지를 바라보노라면 텅 빈 마음이 밝아질 것이요, 행복이나 좋은 일은 이런 곳에 머물게 된다[虛室者虛室生白吉祥也].” 출전 장자(莊子) 인간세편(人間世篇).
☆ 시사상식 / 블록딜(block deal)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가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사전에 구해 시장에 영향이 가지 않게 장이 끝난 뒤 지분을 넘기는 거래.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지만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증가보다 얼마 한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 고운 우리말 / 은결들다
내부에 상처가 나다. 원통한 일로 남몰래 속을 썩인다는 말.
☆ 유머 / 목사와 버스 기사
교회에 처음 간 남자가 꼭 찬 뒷자리를 지나 텅 빈 앞자리에 앉았다. 예배 끝나고 목사가 감격해 손을 잡고 물었다. “반갑습니다. 왜 앞줄에 앉으셨는지요?” 남자의 대답. “저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승객들에게 뒤로 좀 들어가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뒷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범 근 금융부/nova@



가상화폐 투자자와 독 안에 든 쥐

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030세대의 분노는 은 위원장과 기성세대를 겨누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다.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4050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매도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030엔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

제를 쏟아내는 것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의 키를 쥐은 행들도 금융당국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KB와 하나·우리금융지주는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 위험부담을 고려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

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까지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단 폐쇄가 불가피하다. 집단 폐쇄가 현실화되면 투자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얼마 전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열린 전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암호화폐 관련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화폐 열풍을 단순히 투기로 보는 이분법적 태도 대신 기회와 총량이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2030세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입체적 고민이 있을 때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궁지에서 빼낼 수 있다.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한마디로 반칙 없는 사회다. 이는 촛불정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은 사회 정의를 허무는 대표적인 반칙들이다. 이를 청산해 공직사회부터 공정한 풍토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유능한 인재를 원했다. 성공적 인사도 자신했다. 그렇지 않고선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을까 없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5개 허들을 넘을 유능한 인사를 찾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청와대가 믿었던 인사들도 대부분 한두 가지가 걸렸다.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인사들은 스스로 손사래를 쳤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 여기에 코드까지 끼어들면서 인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인사 참사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로는 10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로는 안경환(법무) 조대엽(고용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최정호(국토교통)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이어 6번째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으로 '야당 패싱' 장관은 32명으로 늘었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에 비해 훨씬 많다. 5대 기준이 유효했다면 낙마자는 더 늘었을 것이다. 상당수 후보자는 일부 기준이 유아무야된 덕분에 살아남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로 고전했다.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사는 역대 정권의 골칫거리였다. 지난 20여 년간 낙마한 총리후보지만 6명이다. 청문회가 도입된 김대중(DJ)정부의 장상·장대환 후보자와 이명박 정부의 김태호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 DJ정부의 첫 총리 인준에는 무려 175일이 걸렸다. 청문회 벽에 막힌 장관급 후보자만 36명이었다.

청문회는 후보자 지명과 나마, 임명 강행의 악순환이었다. 검증은 통해 국민 눈높이의 책임자를 찾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이었다.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후보자 흠집내기에 올인했다. 애당초 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청와대 거수기나 다름없었다. 신상털기식 검증에 많은 후보자들이 장관자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스타일만 구겼다. "장관 시킬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인재강국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장관감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 자체가 웃픈 현실이다.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무엇보다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세금 탈루가 부지기수다.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공무출장에 가족 동

행, 표창장 위조 의혹까지 불거졌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법망을 피한 편법과 반칙들이다.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공정·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판이다. 각성이 필요하다. 코드인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에 매달려 정권 스스로 인재풀을 좁혔다. 이 땅에 왜 인재가 없겠는가. 내 식구만 찾으려 하니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책임자가 없다고 꾸짖힐 게 아니라 우물안 인사와 부실한 검증부터 반성할 일이다.

이참에 청문회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하는 투트랙 청문회가 맞다. 후보자의 사생활이 낱알이 공개되는 건 곤란하다. 검증공포에 후보자들은 장관자리를 고사한다. 문제인사는 당연히 걸려야겠지만 도덕성만 고집하면 유능한 정부는 어려워진다. 상대적으로 검증 통과가 수월한 정치인과 관료의 독무대가 될 수 있다. 도덕적 잣대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손볼 필요가 있다.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제도개선에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로남불 때문이다. 야당에 청문회는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야당이 공개청문회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여당인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야당 때 그랬다. 국민의힘이 만년 야당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후진적 청문회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투트랙 청문회로 하되 차기 정부에서 시행하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의는 합리적 타협점이 될 수 있다. 망신주기 청문회는 이쯤에서 끝내자.

leejc@

사설

인플레이 확산에 금리 불안, 위험 커지는 부채 충격

국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5개월 연속 좋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1.6%)이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 높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에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CCSI)가 105.2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CSI는 현재 생활형편과 경기 판단 및 전망, 가계수입·소비지출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다. 100 이상이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는 1월에 95.4로 전달보다 4.2p 오른 데 이어 2월(97.4), 3월(100.5), 4월(102.2)로 개선됐다.

물가와 금리, 집값 전망도 함께 뛰었다. 금리전망지수가 4월보다 6p 오른 118로 2019년 2월(120) 이후 가장 높았다.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내다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2%로 0.1%p 상승했다. 2~4월 동안 떨어졌던 주택가격전망(124)도 2p 올라 다시 반등했다.

인플레이 우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작년보다 2.3%나 올라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플레이 위험은 글로벌 차원에서 증

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최근 원자재값이 뛰면서 물가를 끌어올린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가 4.2%나 올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통한 긴축이 조만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기준금리 인상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충격 요인이다. 그럼에도 금리 등 통화정책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한은이 이날 함께 내놓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서 3월말 가계부채 잔액이 176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53조6000억 원(9.5%)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버랑에 몰린 저소득 가계의 생활자금 조달, 부동산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식 투자 등으로 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

멀지 않아 미국발(發) 금리인상이 촉발되면 한국의 동조화(同調化)도 불가피해지고, 부채를 늘린 가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빚으로 연명하는 취약기업들도 마잔가지다. 금리인상 국면이 시작되면 겹잡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막대한 가계·기업부채와, 그동안 막무가내식 돈퍼붓기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정성은 우리 경제의 충격 흡수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와 금리인상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정부는 보다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재정·통화 정책의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 이야기 - ② 위대한 타협, 파리의 약속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 타결의 현장'은 희열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협상을 주도한 당시 유엔 기후변화위원회(UNFCCC) 사무총장이었던 피케레스는 기억한다. 그날 파리에서 국제 사회는 오랜 대립을 넘어서는 창의적 협력을 통해 195개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이날의 합의를 세계 주요 언론은 "최고의 외교적 성과(the greatest diplomatic success)", "지구를 위한 타협(compromise work for the planet)"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책임 논쟁을 극복하고 인류가 다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대승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파리 협정문은 21세기에 만들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리우에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합의한 이후 국제 사회는 '어떻게 책임을 차별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협상은 특별한 진전 없이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였고 특히 2009년 코펜하겐의 당사국 회의는 처참할 정도의 실패라고 평가받고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조율이었다. 미국, 유럽 등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원본적인 주장이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등은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10년 이상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의 의장을 맡았던 인도의 라젠드라 파추아리는 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을 이유로 석탄 발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환경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누적량(accumulation)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나 인도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 편익을 인류가 공유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각각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각 진영의 획기적인 입장 전환이 없이는 협상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인류는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쌓아 가고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다양한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온실가스 감축

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기업, 환경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의 광범위한 참여가 확대됐다.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한 미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중국도 대승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2014년11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마침내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의무적인 감축량을 부여받는 형태로는 타협이 어렵다고 생각한 협상단은 개별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약속하는 방식(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도입해 대타협을 만들어낸다. 중국의 원 단위(Intensity) 감축 약속은 경제 성장을 계속한다면 온실가스의 절대적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론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한 것이다. 중국도 본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과감한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만들어냈기에 파리 협정을 위대한 타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타협의 정신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2016년 새롭게 집권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탈퇴를 선언한다. 탈퇴의 논리와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진료실 풍경

힘든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시간

"친구는 상태가 좀 어떠니? 너랑 어라(나와 같이 사는 다른 친구)는 괜찮니?" 암마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암마에게 '말기암 친구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전화로 한 터였다. 암마도 암 진단을 받았으니 마음이 많이 쓰이셨나 보다.

15년을 알고 지낸 그 친구는 2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지난 2년 동안 마치 투사처럼 암과 싸워왔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나는 사실 그녀의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별 달리 개입할 일이 없었다. 내가 솔직히 항암치료에 대해 뭘 그리 자세히 알겠는가. 처음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열른 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한 일, 항암치료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끔 약을 처방한 일, 항암제로 인해 골수가 억제되어 골수증식제 주사를 처방받아 오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일하는 의료협동조합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한 일 정도가 내가 의사로서 그녀의 치료에 그간 개입했던 전부였다. 그랬던 내가 친구에게 얼마 전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2년 동안 항암치료를 해왔던 병원에서 갖은 치료에도 암이 줄어들기는커녕 간에

전이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학과로 진료과를 옮기라는 얘기를 들은 그녀였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중단하라는 의사의 얘기도,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말하기 힘든 이야기일수록 돌려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야 하는 법인데, 2년 동안 그녀와 함께 암에 대항하여 싸워왔던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우리 집에서 며칠 쉬 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네가 아픈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고. 우리는 부둥켜안고 잠시 울었다.

암 선고나 사망선언을 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치유의 시간은 필요하다. 내게 그녀와 함께한 5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과 그 시간 동안 그녀만이 아니라 나까지 위로하려 했던 다른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암마, 그 전화 참 고마웠어요.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이 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커리어에서 학습목표 특별해제는 단서의 공간, 단서의 라이프를

공작인테리어 가전

LG Objét collection